

리처드 범브란트 저  
최광신 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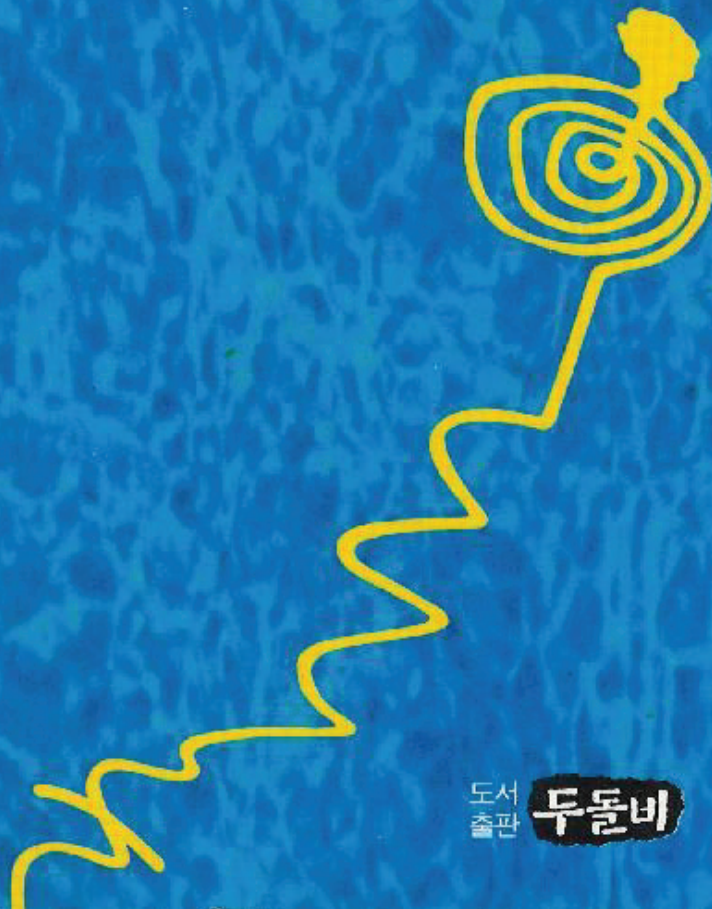


# 지하교회의 목소리

지하교회의 목소리

이 · 책 · 은 · 영 · 크 · 로 · 만 · 기 · 록 · 된 · 것 · 이 · 아 · 니 · 다

많 · 은 · 영 · 혼 · 들 · 의 · 피 · 로 · 기 · 록 · 된 · 책 · 이 · 다



도서  
출판 **두돌비**

---

# 지하교회의 목소리

리처드 범브란트 저  

---

최광신 편역

도서  
출판 **두들비**

지하교회의 목소리

---

지하교회의 목소리

지하교회의 목소리

## 역자 서문

할렐루야!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88년 이후 세계의 이념 분쟁은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분단되었던 동서독은 통일되었고, 공산 중국은 이념을 떠나 서구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연방은 붕괴되어, 구 소련의 각국은 서구 민주국가의 제도와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 공산국가군은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는 데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겪으신 공산 치하에서의 온갖 고초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말로 소개한다는 것은, 과거의 지난 일로서 공산 세계가 붕괴된 현 시점에서는 시의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북쪽,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녘에는 동토의 왕국이

건재하고 있으며, 도도히 흐르는 복음의 물결이 남쪽 땅에 고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살인과 고문 등 적그리스도적 활동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북쪽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발간된 것입니다. 이 책은 공산 치하의 몸서리치는 사탄의 활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겪었던 수난의 역사가 기독교의 전파를 촉진했던 것처럼, 이 책에 나타나는 현대 공산 사회에 의한 기독교 수난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핍박받는 이들이 자유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던 무언의 항변이 우리의 나태한 신앙에 도전이 되어, 지금 이 시간 공산치하에서 목숨이 붙어 있음을 원망하는 복녘의 가련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로써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진정 복음을 갈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을 펴내기까지 기도와 격려와 물질로써 애써 주신 두돌비서원 대표 이승호 집사님과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역자의 서문에 갈음합니다.

번역자 최 광 신

## 지하교회의 목소리

⋮

## 차 례

역자 서문 .....	4
제 1 장 거듭남과 사명감 .....	9
소련 사람들에 대한 전도/“사랑”이란 말과 “유혹”이란 말은 결국 같은 말이다/매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소련인 들/소련군 병사(兵舍)내에서의 설교/노예화된 국민에 대한 우리의 지하 전도/지하교회가 어떻게 공개리에 일할 수 있 었나?	
제 2 장 옥중 생활 .....	43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이것이 세뇌교육이다/잠시 동안의 자유-또다시 체포/우리는 대책을 세웠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대씩 매질을 당하기로/내 아내와 아들에게 일어 났던 사건/미하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제 3 장 출애굽 .....	63
왜 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루마니아를 떠났는가?	

제 4 장 신앙의 능력 ----- 69

우리는 어떻게 감옥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는가? / 어떻게 정신적으로 공산주의를 공박할 수 있나? / 역사상 교훈이 무시되고 있다/내가 석방되었을 당시 발견한 사실들/왜 나는 서구 세계에서 고통받는가? /

제 5 장 복음의 시역 ----- 113

지하교회는 어떻게 무신론적인 문서들을 양식으로 삼고 있나?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지하교회는 세 개의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제 6 장 지하교회 ----- 140

빙산의 일각/긴급 통신/지하교회에 대한 박해는 증가 추세에 있다/공산당원이었던 바리아(Varia)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며 노예 노동자가 되었는가?

제 7 장 사랑의 호소 ----- 169

어떻게 자유 세계의 기독교인이 도울 수 있나? /성경과 복음서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들이다/기독교 순교자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

## 제 1 장

# 거듭남과 사명감

### 무신론자가 발견한 그리스도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나는 어린 시절에는 종교 교육이라고는 받아 본 적이 없었고, 14세가 되던 해에는 거의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비참했던 내 어린 시절의 형편 때문이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난을 겪고 살아왔다. 14세 때에 나는 오늘날의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완벽한 유물론자가 되었다. 나는 유물론자들이 지은 책들을 주로 읽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가 인간 정신에 해롭다고 생각해서 기독교 신앙을 싫어했었다. 이를테면 나는 기독교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알게 되었지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의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종교를 일찍 갖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내 성격이 매우 거칠어서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갖지 못했던 때문이다.

그렇게 무신론자였던 내가 어떤 충동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교회 옆을 지나칠 때마다 들어가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종종 느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가 보아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으므로,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더해 갔다. 나는 내가 복종해야 하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관념을 혐오했다.

그러나 나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어느 곳엔가는 사랑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했었다.

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기쁨이라는 것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나의 마음을 울려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어디엔가 있기를 오랫동안 갈망했다.

나는 신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번은 정신 세계의 크나큰 갈등을 느끼면서 성당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들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엿들은 다음에 그들이 하던 기도를 되풀이해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살펴보기로 했다.

그들은 “아! 은총이 충만하신 마리아여”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도 그들을 따라서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나서 성모 마리아상을 바라보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무척 실망했다.

어느 날, 확고한 무신론자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존재한다 해도, 물론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 당신을 믿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내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지만 무신론주의가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 루마니아의 어느 산 정상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늙은 목사 하나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신을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베풀어 주실 상급처럼 땅 위에서 제게 복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나의 상은, 예수님도 유대 민족에 나셨으니 제가 죽기 전에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며 늙고 병들

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유대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유대인 한 사람을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그 마을로 이끌었는데, 사실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루마니아에는 12,00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촌락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마을로 가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자 그 목사는 어느 아름다운 소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나를 대해 주었다. 그는 ‘나’라는 존재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줄 믿고 내가 입을 만한 성경책을 주었다.

전부터 나는 교양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여러 차례 성경을 읽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준 성경책은 또 다른 의미의 성경책이었다.

훗날 그는 나와 내 아내가 속히 변화받기를 자기의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노라고 말했다. 그가 내게 건네준 성경책 속에는 글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의 기도로 뜨겁게 달구어진 사랑의 정열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책을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삶과 지난 날의 내 삶, 주님의 깨끗한 생활과 내 더러운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과 증오와 원망에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생활을 비교할 때 성경책 위에 엮드려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맞아 주셨던

것이다.

내가 변화받은 이후 아내도 역시 변화되었다. 그녀는 다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인도된 영혼들은 또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 결과 루마니아에는 새로운 루터파 교회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치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루마니아에서 나치즘은 정교회 요소를 갖춘 독재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일체의 모임을 박해했다.

나는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고 목사직을 위한 준비를 하기도 전이었지만, 교회를 창립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여러차례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나치 법정에 끌려가기도 했다. 아들 미하이에게는 죽음만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비유대적인 이름을 지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나치 시대 밑에서도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비밀리에 기독교 선교를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습득하게 해주었으며, 그 방법들은 앞으로 다가올 가혹한 시련을 맞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 소련 사람들에게 대한 전도

지난 날 무신론자였다는 죄책감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나는 변화받은 첫날부터 소련인에게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무신론주의 속에서 양육된 국민들이다. 소련인에게 전도하기를 바라던 내 소망은 나치 시대부터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루마니아에는 소련인 전쟁 포로가 수천 명이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극단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일이었다.

그중에서 내가 만났던 첫번째 소련인 죄수를 잇을 수가 없는데, 그는 자기가 기술자였다고 했다. 처음 그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모든 인간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라는 나의 질문에 대해 그는 “하나님”이란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군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눈물이 내 뺨 위로 흘러내렸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의 정신은 죽어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는 하나의 위계 질서만을 믿든가 아니면 거부해서 죽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이 공산 치하에서 살고 있는 소련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었다.

공산주의가 인간에게 행한 것들을 본 충격 이후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며, 그들에게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돌려줄 것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귀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믿음을 돌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소련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련에 갈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1944년 8월 23일 새벽에 백만여 명의 소련 군대가 루마니아에 주둔했으며, 뒤이어 공산당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악몽은 시작되었다. 나치 시대의 고통은 오히려 견디기가 쉬웠던 것 같았다.

그 당시 루마니아 인구는 약 천팔백만이었고, 공산당은 당원 들만 해도 일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소련공화국 외교 서기관인 ‘비신스키’가 우리의 수상인 ‘미카엘 I 세’의 궁전에 갑자기 찾아 와서는 주먹으로 책상을 탕탕 치면서 기세를 올려 말했다.

“공산당원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시오”

우리나라의 군대와 경찰은 해체되었고, 모든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공산당이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런 일은 그 당시 미국과 영국 지도자들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식민지 국가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미국이나 영국 기독교인들의 양심에 묻고 싶다. 미국 사람들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소련에 협조함으로써 급기야 우리에게 살인과 테러라는 제재를 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은 포로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난 날의 죄과를 속죄하여야 한다.

### “사랑”이란 말과 “유혹”이란 말은 결국 같은 말이다.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묘하게 유혹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사랑”이란 말과 “유혹”이란 말은 결국 같은 말인 셈이다. 아내를 얻기 위해 여자를 찾는 사람이나, 밤에 즐기려고 여자를 필요로 하며 그런 이후에는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들이나 한결 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과 “미혹”이란 말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면서 양과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사납게 달려드는 이리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천 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신부나 목사들이나 하나같이 위선된 두 목소리를 구별해 내지 못했다.

공산당은 우리 정부의 국회 건물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개최했다. 그곳에는 신부와 목사와 종교계 지도자들이 4천 명이나 모였다. 그들은 ‘조셉 스탈린’을 이 집회에서 명예 의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그는 악명높은 존재로서 세계 무신론주의 운동의 의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며, 또한 대중 학살자이기도 했다. 카톨릭 주교들과 신부들은 국회 건물 안에서 차례로 하나씩 일어나더니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원래 같은 것이며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한 사람씩 차례로 일어나서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말을 하더니 새로운 정부에 교회가 충성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내와 나 역시 이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곁에 앉았던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처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모욕적인 수치를 씻어 버리세요!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당신 남편을 잃게 될 거요.”

“나는 내 남편이 비겁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살인자를 찬양할 수 없으며 우리의 충성은 첫째로는 주께로 향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집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전국에 방송되었고, 공산당 의회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된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그 일로 인해 나는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 정교회와 개신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어서 공산주의에 복종하느라 야단들이었다. 어떤 그리스 정교회 주교는 그의 예복에 십자가 대신 망치와 낫으로 된 견장을 붙이고 그의 신부들이 그를 “당신의 은총”이라고 부르는 대신 “주교 동무”라고 부를 것을 요청했다.

나는 ‘레시타’ 시에 있는 침례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 채로 소련 국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 집회는 붉은 깃발 아래서 개최되었다. 침례교회 회장은 스탈린이 하나님을 계명들을 지켜 행했을 뿐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그는 스탈린을 성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칭찬을 한 것이다. 파트라스쿠와 루지아누 같은 신부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들은 비밀 경찰의 사무요원이 되었다.

루마니아에 있는 루터파 교회의 대리 주교인 랩은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3명의 계시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였는데 첫째는 모세를 통해, 두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세번째는 스탈린을 통해서 계시를 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자인 스탈린은 이미 앞서간 자보다 훨씬 우월적인 존재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존경스럽고 진실된 침례교 목사님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충직했다.

그러나 어쨌든 공산당은 그들을 지도자로 선출하였고, 침례교 목사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들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 고위 종교 지도자층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신, 공산당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동포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하교회를 세웠듯이,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배신 행위는 루마니아에 지하교회를 세우는 데 고무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교회는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전도 사업을 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였

다.

공산당은 이런 것들을 일체 금했으나 형식상의 교회는 인정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하 전도 사업을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내게 주어진 지위는 존경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지하 운동과 비교할 때는 무관한 것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나는 노르웨이에 있는 루터교회의 목사였으며, 루마니아에 있는 세계 교회 회의의 대표 자격으로 일하기도 했었다. 루마니아에서 우리는 이 기관이 공산주의자들과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제 사업에 지나지 않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직위는 내가 당국 앞에 서기에는 매우 좋은 입장이었는데, 그들은 내가 지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하 교회를 보면 두 개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백만 명에 달하는 소련 군인들 속에 있는 비밀 전도 단체였고, 다른 하나는 노예화된 루마니아 국민에 대한 우리의 지하 전도 조직체였다.

## 매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소련인들

내게 있어서 소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왔지만 소련 사람들처럼 말씀에 흠뻑 빠져드는 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처럼 갈급해 있는 영혼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리스 정교회 신부인 나의 친구 중 하나는 내게 전화를 걸어서, 한 소련군 장교가 자기에게 고해를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자기는 소련 말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소련 말을 한다는 사실이 생각나서 그 장교에게 내 주소를 알려 주었다고 했다.

다음날 그 장교가 내게 왔는데, 그는 지금까지 성경책을 본 적이 없었으며 종교적인 예배 의식에도 참석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소련에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이라고는 받아 본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그분을 사랑했다.

나는 그에게 산상수훈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더니 그는 미친 듯이 기쁨에 넘쳐서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외쳐 댔다.

“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인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에 못박힌 사실을 읽어 주었으나 그것에 대한 예비 지식은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예기치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도 어떻게 매맞았으며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에 주저앉아서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한 메시아(구세주)를 믿어 왔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죽고 없으니!

그런 그를 보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목사이며 못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이 소련군 장교가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절감한 만큼의 그런 공감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십자가 아래서 울며 서 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을 때까지도 슬피 울고 있는 충성스러운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구세주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무릎을 치면서 경망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다짐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매우 성스러운 맹세였다고 생각된다. 그의 말은 조금도 꾸밈새가 없었다. 그는 다시 뿔 듯이 기뻐했고 기쁨에 넘쳐서 소리쳤다.

“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는 다시 기쁨에 넘쳐서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에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으나 그는 기도하는 것조차 몰랐다. 우리가 기도에 사용하는 거룩한 구절도 몰랐다. 그는 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고 당신이 나였다면 나는 결코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이 소련군 장교의 엄청난고 놀라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편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어떤 가게에서 나는 여군 장교와 함께 나온 한 소련군 장교를 만났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서 소련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장사꾼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통역을 해주었고 곧 우리는 친해졌다.

식사 전에 나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은 기독교인의 가정애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라고 말한 뒤 소련말로 기도를 했다.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더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성경에 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그들에게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 100마리나 되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공산당의 집단 농장에 양들을 바치지 않았죠?”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다시 말했다.

“역사에서 왕들은 모두 백성들을 탄압하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도 또한 거룩한 압제자였겠군요!”

내가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들은 말했다.

“농장 주인에게 폭동을 일으킨 것은 매우 잘한 일이군요. 원래 그 농장은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실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한 서구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성 모독으로 들렸을 질문을 하

였다.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였나요?”

그들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산 체제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소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야만 했다.

중앙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들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라는 이사야서의 구절을 번역하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흰 눈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눈”이라는 것은 개념조차 있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만 했다.

“너희 죄가 야자수 씨와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공산 국가에서 사용하는 마르크스(공산주의 창시자)의 언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만 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으나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

그 장교와 여군 장교는 같은 날 변화되었다. 훗날 그들은 소련인들을 목표로 한 우리의 지하 전도를 많이 도와주었다. 변화된 소련 군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서적들과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소련으로 몰래 들여보냈다.

우리는 복사한 성경 말씀들을 소련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소련 병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만 계속해 왔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소련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었다.

나의 아들인 미하이와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각자의 호주머니에 많은 성경책과 복음서, 그리고 전도지들을 넣어 가지고 거리나 공원에 있는 소련 병사들에게로 갔다. 병사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식들을 생각하며 정답게 얘기를 했다. 병사들은 어린이들에게 초콜렛과 사탕을 주었고, 어린이들은 군인들에게 성경책과 복음서들을 건네 주었는데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너무 위험해서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의 아이들은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소련 사람들을 위한 꼬마 전도자들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아주 훌륭했다. 많은 소련 군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받았다.

## 소련군 병사(兵舍) 내에서의 설교

우리는 소련인들에게 개인적인 증언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 사람들은 시계를 매우 좋아해서 시계만 보이면 빼앗았다.

그들이 노상에서 사람들을 멈추게 하면 사람들은 시계를 건네주어야만 했다. 소련 군인들은 저마다 몇 개씩의 시계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한 소련 여군 장교는 자명종 시계를 목에 걸고 다니기까지 했다. 그들은 전에는 그런 시계들을 가져 본 적이 없었고 그럴 만큼 충분하지도 않았었다.

시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계를 사기 위해 소련군 막사로 가야 했고 그중에는 종종 자신의 시계를 되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루마니아 민간인들이 막사로 들어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우리 지하 교회 일원도 시계를 사러 간다는 그럴싸한 핑계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소련 막사 내에서 첫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도를 성 바울과 성 베드로의 기념일인 그리스 정교회 축제날로 택했다.

나는 시계를 사러 온 척 병영으로 들어갔다. 시계를 고르면서 이것은 너무 비싸다느니, 저것은 너무 작다느니 하면서 능청을 떨었다. 몇몇 병사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서는 제각기 자기 시계를 사라고 내밀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혹시 이중에 바울이나 베드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곧 이어서 “그러면 오늘이 그리스 정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때 늙은 병사 한 사람이 나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시계를 사러온 게 아니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 게로군요.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나 합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무릎에 손을 얹으면 시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손을 떼면 다시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삼시간에 내 주위로 몰려들었고, 나는 그들에게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때때로 아무런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내 주위로 몰려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 병사는 내 무릎에 손을 얹었고, 그러면 나는 재빨리 시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버리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방문은 소련 기독교 군인들의 도움으로 반복되었다. 그들 동료 중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수천장의 전도지가 비밀리에 전해졌다.

지하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하다 체포당해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우리 지하 교회를 배반하지는 않았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소련내의 지하 교회의 교우들과 만나서 체험담을 서로 나누면서 큰 기쁨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위대한 성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이들이 긴 세월 동안 공산당의 독재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그들 가운데는 공산주의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있었으나,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살면서도 고기맛이 나는 것처럼, 그들이 비록 공산당의 학교는 거쳐 나왔어도, 그들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 소련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도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영혼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에 달려 있는 망치나 낫과 별을 적그리스도의 별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의 표정 속에서 큰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소련 병사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들은 기쁨의 미덕 외에도 기독교인들이 갖

추어야 할 모든 미덕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중생할 때 느낀 기쁨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

어떤 침례교인에게 “어찌해서 당신에겐 기쁨이 떠나 있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의 목사에게 숨기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교회 목사는 비밀 경찰의 내통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감시당하고 있고 또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이런 예외적인 기쁨을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는 극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자유로운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을 인도할 때, 여러분은 비밀스럽게 살아 있는 교회의 성도 하나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인, 즉 지하 교회의 기독교인을 만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믿고는 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련인들 가운데는 그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았다.

얼마 전에 어떤 소련인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은 둘 다 조각가였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대뜸 말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

람들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우리는 스탈린 동상을 세우는 곳에서 일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내 아내가 ‘여보 엄지손가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에 맞붙일 수 없다면, 가령 손가락이 발가락처럼 생겼다면 우리는 해머, 망치나 다른 연장들과 책, 심지어는 빵 한 조각조차도 잡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류의 생활은 이런 사소한 엄지손가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엄지손가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둘 다 학교에서 마르크스의 이론들을 배웠고 하늘과 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여튼 나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창조했다면 이런 조그만 일을 하신 걸로 봐서도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전구와 전화, 기차 철로와 다른 여러 가지 전기 발명품을 만든 에디슨과 벨과 스티븐슨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칭찬해서는 안 되죠? 만약 에디슨이 엄지손가락이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엄지손가락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라고 합니다.”

가끔씩 남편들이 알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아내가 현명하게 이야기할 때 화를 내듯이 그 남편도 핑장히 화를 내었다고 한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집어치우시오. 당신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워 왔소. 혹 우리집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하면 어찌겠소? 당신 마음 속에도 아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새기시오. 하늘엔 아무것도 없소!”

아내는 대답하기를

“이것은 대단히 이상스러운 일이지요. 만약 하늘에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게도 믿어 왔던 전지 전능한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엄지손가락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 대신에 내 주관대로 엄지손가락을 만든 그 ‘누군가’를 내 마음 속 깊이 정성껏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었다 한다. 이런 “어느 누군가”에 대한 신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깊어 갔고, 또한 그 존재가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별, 꽃, 어린아이들과 살아있는 아름다운 것들 모두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것은 일찍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한 바와 같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올바르게 믿어 왔다는 것과, 하늘에는 “육체를 갖지 않은 신”이 실제로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신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커다란 특권을 갖게 되었다.

언젠가 거리에서 한 소련 여군 장교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대뜸 걸어가서 실례를 구한 다음 이야기를 청했다.

“거리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말씀을 청한다는 것이 실례인 줄 압니다. 나는 목사이고 내 의도는 진지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녀는 내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신가요?”라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예, 그래요. 난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갑자기 내 팔짱을 끼더니 내게 몇 번이고 키스를 했다. 나는 매우 당황했지만, 행인들이 우리 사이를 친척간이라고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내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녀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외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과, 구원이란 무엇이며, 예수님은 어디에서 살았고, 어떻게 죽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그의 생애와 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나는 슬며시 그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이름만 듣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물었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 나는 그림으로 읽는 법을 배웠죠. 그림에 사과가 나오면 ‘A’, 종이 그려져 있으면 ‘B’, 고양이가 있으면 ‘C’와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상급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는 공산 조국을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으며, 공산

주의 도덕률에 대해서도 배웠으나 ‘신성한 의무’ 또는 ‘원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진 같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 생활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진실된 것을 담은 그림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제 할머니는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사진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사랑해 왔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 이름이 나에게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니……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쁨을 주는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립보서에 적혀 있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는 한 동안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녀는 기쁘게도 내 집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이제까지 그녀가 이름만으로 사랑했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

내가 소련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추억들은 아름다운 시구처럼 심오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기차 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자매가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장교에게 내 주소를 알려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집으로 찾아왔는데, 키가 훗칠하고 잘 생긴 상급 군인이었다.

“당신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는 “나는 빛된 세계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진실로 부탁드리겠는데 나를 미혹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깊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듣기만 하더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소련 사람들은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대중대중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사상적인 면이라고 해서 가볍게 대하지도 않았다. 만약 그들이 종교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혹은 종교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면, 그들은 그 일에 영혼까지라도 투자했을 것이다.

이것은 소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토록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전도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복음 사업을 벌이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성숙해 있지도 못한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소련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본능적으로 종교를 갈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세계의 역사는 변할 것이다.

소련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굽주려 있다는 것은 참담한 비극이며, 이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되 성의 없이 형식적인 메시지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차 안에서 한 소련군 장교가 내 앞에 앉았다. 내가 그에게 잠깐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무신론자인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마르크스, 스탈린, 볼테르, 다윈과 같은 성서에 반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이론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는 내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신은 없다”라는 말로 나를 확신시키려는 듯 거의 1시간 가량이나 혼자 떠들어 댔다. 그가 말을 끝냈을 때 내가 말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왜 당신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러자 그는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 듯이 깜짝 놀라면서 반문했다.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내 질문을 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했다.

“내가 먼저 질문했죠? 당신은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머리를 떨구고서 곧 시인했다.

“사실 우리가 독일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전선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신이시여, 어머니의 영혼이시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의 눈에는 매우 훌륭한 기도로 여겨졌을 것이다.

소련인들에 대한 우리의 전도 사업은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

나는 ‘피요트르’를 기억한다. 그가 소련 감옥에서 죽었는지 혹은 살아있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20세쯤 되는 아주 건강한 젊은이였는데 소련 군대와 함께 루마니아에 와서 지하 조직 모임을 통해 변화를 받고 곧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이 끝난 자리에서 나는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들을 가장 인상깊게 들었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그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분은 더 멀리 가려는 것처럼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라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진실로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더 멀리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환영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기쁘게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들은 무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을 침범해 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도록 강요합니다. 그들은 학교, 라디오, 신문, 포스터, 영화, 무신론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좋은 싫든 간에 계속 무신론적인 선전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점잖은 품성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그리스도 사이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서 그는 확고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으

로 인해 감화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목사이면서도 한번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변화받은 후 피요트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기독교 문서들을 몇 차례나 들여왔으며, 루마니아에서 소련까지의 지하교회 사업을 도와주었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1959년 이후 계속 감옥에 있었다. 지금은 생사도 모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변화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영혼마다 승리하도록 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었다.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은 다른 영혼을 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소련인들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모할 정도로 용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때문에 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일 뿐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했다.

## 노예화된 국민에 대한 우리의 지하 전도

우리의 두번째 사업은 루마니아인들 사이의 지하 전도이다.

공산당들은 곧 그들의 잔인성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네들 편에 서도록 유혹했으며, 그리고 나서 테러행위가 시작되었다. 수천 명이 체포되고, 이젠 그리스도 편에서만 영혼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형편이었다.

소련에서 그러했듯이 나도 얼마 안 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투옥되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직접 인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당시 함께 투옥된 사람 중에 6명의 자녀를 둔 어떤 사람과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의 투옥으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굶주릴 것이 분명했고, 어쩌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에게 내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기 때문에 당신 가족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이 나를 놀라운 구세주께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달리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 접하게 된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는 공산당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후에 기독교 팸플릿을 여러 번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맨 앞장에는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의 사진을 담은 소책자를 공산 검열관에게 보냈는데, 그 책에 “민중의 아편인 종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목을 붙였다. 그는 그것을 정말로 공산주의 책으로 생각해서 책에다 인장을 찍어주었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사상을 몇 페이지만 넣어 검열을 피하고 다음 내용부터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실었다. 우리는 공산당의 시위 대열에 참석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소책자들을 나눠주었다.

마크스의 사진이 실려 있자 공산당원들은 그 책을 사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그들은 10페이지 정도를 읽은 후면 그 내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겠지만 그때면 이미 우리는 멀리 달아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여건 속에서 복음 사업을 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 동포들은 상당한 억압을 받고 있었고, 공산당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압수했다. 농부에게서는 농토와 양떼를 빼앗았고, 이발사와 재봉사에게서는 소규모의 가게를 몰수했다.

비단 자본가들만이 당한 것이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도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한 가구당 적어도 1명씩은 어떤 이유로든 투옥되었으며, 가난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악마가 우세하도록 허락하느냐?”고 빈정거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면서 죽으신 후, 초대 전도자들이 수난의 금요일에 관련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못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들, 즉 악마들에게 맡겨져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대답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나사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천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그 당시에 천대받았으며, 굶주리고 개가 와서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어

갔지만 결국에는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 지하교회가 어떻게 공개리에 일할 수 있었나?

지하 교회는 개인 집이나 숲속 그리고 지하실 등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모였다. 우리는 비밀리에 지하 교회의 사업 활동을 준비하여 가끔씩 공개리에 일하기도 했다. 공산 치하에서 우리는 노방 전도를 계획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나, 이 방법만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데가 있었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거리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 노래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아내가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은 순찰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오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카레스트’ 시에 있는 ‘마락사’ 공장 정문 앞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하나님과 구원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다음 날 공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공산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킨 후에 총살당했다. 그들은 즉시 복음을 전해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하 교회를 운영했지만 세례 요한처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다.

어느 날, 한 정부 청사 계단 앞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수상 ‘게오르규 데’에게 그들의 방법대로 전도를 했다. 전도한 지 몇달 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간증했고 죄악과 종교적 박해로부터 수상이 돌아설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용감한 간증 때문에 투옥되었다.

몇 년 후에 수상이 병이 들었다. 그리고 그제야 몇년 전에 투옥된 그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거두었다.

병상에서 수상은 오래 전에 자기에게 전해 준 메시지를 기억했다.

“……빠르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나니……”

강박한 그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그의 생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다. 수상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의 영혼은 그가 새로 발견한 그리스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공산주의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감한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하 교회는 비밀 집회와 비밀 활동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공산당이 모여 있는 거리와 공산당 지도자들에게까지 가서 공개리에 복음을 선포했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우리는 그 대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 지하 교회도 여전히 그 상금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비밀 경찰은 지하 교회를 상당히 박해했는데, 그들은 지하 교회만이 실제적으로 끝까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영적인 저항 운동을 방해하지 않으면 이 저항 운동이 그들의 무신론적인 힘을 약화시킬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악마만이 할 수 있는 잔인한 위협을 했다.

만약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는 지성 있는 인간으로 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은 감금할 수 있으되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감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열성을 가지고 대항했다.

그러나 지하 교회를 지지하는 공산당원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산 정부와 비밀 경찰에까지도 지지자와 교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비밀 경찰에 가입하도록 권유했으며,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증오하고 멸시하는 비밀 경찰 제복을 입음으로써 이들은 비밀 경찰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

지하 교회의 여러 형제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비밀 경찰에 가담했다. 공산주의 제복을 입음으로써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자신들의 임무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누명을 쓴 채로 일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은 위대했다.

내가 거리에서 불시에 납치되었던 관계로 내 거처 문제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 이를 알기 위해서 한 기독교인 의사가 실제로 비밀 경찰의 당원이 되었던 일도 있다. 비밀 경찰 의사인 그는 감방마다 접근해서 나를 찾았다.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가 공산당원이 된 사실 때문에 그를 멀리했다.

고문관의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죄수복을 입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엄청난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 의사는 깊고 어둡침침한 감옥에서 나를 발견하고는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전해 주었다.

그는 내가 8년 반 동안 수감되어 있을 때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한 유일한 친구였다.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아이젠하워와 흐 루시초프 사이에 화해가 있었던 1956년에 죄수들이 석방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내 석방을 위해 탄원했고, 덕분에 나는 잠시 동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나를 찾기 위해 특별히 비밀 경찰에 가입했던 기독교인 의사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풀려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비밀 경찰이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지하 교회의 구성원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하 교회에는 오늘날도 여전히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보호를 아끼지 않는 비밀 경찰 요원이 있다.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공산당원 중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도 있다. 그들이, 지금은 비밀리에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 가면 만민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발각되어서 투옥되었다. 우리 지하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유대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 공산당은 고문, 위협, 공갈 등으로 그들 형제를 밀고하는 목사와 신도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 제 2 장

### 옥중 생활

나는 1948년 2월 29일까지는 지하 조직과 공식적인 방법을 겸해서 일했다. 꽤청한 일요일, 교회로 가던 도중 나는 거리에서 비밀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비밀 경찰 차 한 대가 내 앞을 가로막더니 네 명의 비밀 경찰이 뛰어내려서 나를 차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었다. 성경에는 “인간을 도적질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나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몇 년 동안 또 수감되었고, 8년이 지나도록 내 생사(生死)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비밀 경찰은 석방된 동료 죄수로 가장하고는 내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죽었다면서, 내 장례식에까지 참석했었노라고

말했고, 아내는 진짜인 줄 믿고 몹시 슬퍼했다고 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파에서 수감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 수천 명에 달했는데, 목사와 같은 성직자뿐 아니라 단순한 농부, 신앙 간증을 했던 어린 소년 소녀들까지도 감옥에 들어왔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에는 죄수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감옥에 수감된다는 말은 고문을 당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고문은 때때로 무시무시하리만치 가혹했다. 지금도 나는 예전에 당한 고문을 조금만 생각해도 생생하게 되살아나 소름이 끼치는 것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곤 한다. 그래서 이전의 그 고문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피하곤 한다.

##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

‘플로레스쿠’ 목사는 빨강계 달구어진 쇠꼬챙이와 칼로 고문당했으며 심하게 구타당했다. 그리고 커다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굶주린 쥐떼들이 그의 감방으로 몰려들어왔다.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잠시만 방심하면 굶주린 쥐떼가 마구 공격을 퍼부어 댕기 때문이었다.

공산당은 최후의 수단으로, 14세 된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가 자백할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 아들에게 매질을 가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참을 수 있는 한 계속 버텼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네가 매맞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자 아들이 외쳤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배신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참으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의 이름으로 명예롭게 죽겠어요.”

공산당원들은 화가 치밀어서 그 어린애를 엮어놓고 죽도록 매질을 했다. 결국 감방의 벽은 피로 물들었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플로레스쿠 목사는 이 일을 목격한 이후 정신 이상이 되어 버렸다.

안쪽에 날카로운 못이 박힌 수갑이 우리 손목에 채워졌다. 꼼짝도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수갑은 살을 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살을 에는 듯한 추위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았다. 추위에 온몸을 떨게 되자 손목은 그 못들에 의해서 사정없이 찢겼다.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매달린 채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또 내부가 얼음으로 뒤덮힌 냉동실과 같은 얼음상자 속에 갇히기도 했다. 나 자신도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그곳에 내던져졌다. 얼어 죽을 지경이 되면 구멍을 통해서 동정을 살피고 있던 감방 의사가 경고를 한다. 그러면 안내원이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는 따뜻하게 해 준다. 우리가 마침내 훈기를 느낄 수 있게 되면 다시 얼어붙도록 차가운 얼음상자 속에 되돌려 보내지는 일이 몇 차례나 반복되었다. 몸이 녹자마자 1~2분 안에 죽을 듯이 얼어붙기 시작하다가 이번에는 다시 녹혀지고……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그 일을 생각하면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젓번에 있던 곳보다도 더 작은 나무로 된 상자 속에 갇히기도 했다. 이 방안에는 움직일 틈이라고는

한 치도 없었으며 아주 날카로운 못들이 사방에 박혀 있어, 압 전히 서 있어야 했다. 어쩌다 몸을 움직이기라도 하면 그 못이 사정없이 우리를 찌르곤 했다. 무시무시한 못 때문에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공산당원들이 기독교인을 고문할 때 그들의 얼굴에 광적인 희열을 느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고문을 할 때 “우리는 모두 악마다”라고 외쳤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공산주의는 일종의 영적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이며, 이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더 강력한 영적 세력인 성령밖에 없다.

내가 가끔씩 고문관에게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동정심도 없나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레닌의 말을 인용하면서 항상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계란 껍질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고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나무를 자를 수가 없는 법이오.”

내가 다시 물었다.

“나도 당신이 인용한 레닌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은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자를 때 그 나무에게는 감정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인간입니다. 매질당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고, 그 뒤에는 이런 사실에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헛일이었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물질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인간 역시 나무나 계란 껍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학하다. 인간에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그가 꼭 인간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일단 악마의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한다. 고문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으며 악마에 대한 벌도 없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고문관은 심지어는 “내가 믿지는 않지만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악을 표현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감사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 마음 속에 있는 악마를 표현했다. 만약에 악어가 사람을 잡아 먹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악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존재인 인간이 아니라 한마리의 악어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힐책을 한다 해도 그가 인간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그들 마음 속에 주어진 윤리적인 감각들을 파괴해 왔으며, 그들 가슴 속에 동정심이라곤 있지 않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들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자리를 한 치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악마가 들어올 한치의 구석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미국에 있는 국제비밀분과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4일 밤낮을 꼬박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수들의 얼굴과 몸위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날라 와야만 했다. 그런 후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은 ‘너희들의 예수를 보아라.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로부터 무슨 향기를 가져오는가!’  
라고 떠들어 대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나는 고문으로 인해 거의 미치광이가 된 목사가 인간의 똥과 오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도록 강요당한 것을 증언했다. 이 사건은 ‘피테스티’의 루마니아 감옥에서 발생했다.

그 후에 나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아 주시오.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묘사와 단테의 『신곡』(神曲)중 지옥편에 묘사된 고통은 고문관들이 공산 감옥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일요일마다 피테스티 감옥에서 벌어졌던 일 가운데 극히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다른 일들은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어서, 만약 이 일을 반복해서 말한다면 내 심장은 멎을 것만 같다. 그들은 너무 잔인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겪었던 사실이며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다.

신앙면에서 참으로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밀란 하 이모비치’라는 목사님을 들고 싶다. 감옥은 항상 만원이었고, 따라서 간수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을 불러내서 감옥 안에서 지켜야 할 몇몇 규칙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스물다섯 대씩 때리곤 했다. 밀란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매를 맞으려 감으로써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

해 다른 죄수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공산당의 잔학성과 기독교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한이 없을 것이다. 감옥 안에서의 그런 영웅적인 행위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형제들에게 크게 격려가 되었다.

지하교회에서 노동을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공산당 경찰은 그녀가 비밀리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더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소녀가 결혼하는 날까지 몇 주간 더 기다리기로 했다. 결혼식날 그 소녀는 신부로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일생에게 가장 멋지고 기쁜 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비밀 경찰들이 몰려들어왔다. 신부는 비밀 경찰을 보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어서 수갑을 채우게 했고, 그들은 아무렇게나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신랑을 쳐다보고서, 쇠사슬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신랑이 이렇게 값진 선물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식 날에 특별히 내게 선물을 보내주셨나 봅니다. 나도 그를 위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합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신랑을 뒤로 한 채 끌려갔다. 그들은 공산당원들이 젊은 기독교인 소녀에게 어떤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년 후에 그녀는 석방되었는데, 짓밟히고 상처받은 여인으로

거의 30세는 되어 보였다. 그녀의 신랑은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가 겪은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일이 아니겠냐”고 위로했다.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인들이 지하 교회에는 많이 있다.

## 이것이 세뇌 교육이다

서구인들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세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나 자신도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고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고문이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하루에 17시간 동안 줄곧 다음과 같은 얘기만 듣고 앉아 있어야 했다.

“공산주의는 훌륭한 것이다.”

“공산주의는 훌륭한 것이다.”

“공산주의는 훌륭한 것이다.”

“기독교란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란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란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를 포기하라.”

“기독교를 포기하라.”

“기독교를 포기하라.”

하루에 17시간씩 1주일이고 몇 달이고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내게 “어떻게 하면 세뇌 교육에 항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세뇌 교육에 저항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었는데,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깨끗해져 있고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고문과 시험에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받은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서 탄 짓을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있는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고문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내는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하신다. 나는 공산 감옥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지켜본 목격자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고문과 짐승 같은 야만성은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었다. 의식을 잃거나 너무 멍청해져서 더 이상 자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감방으로 되돌려 보내지곤 했다. 감방에 누워서 간호도 받지 못하고 반 죽음 상태가 되어 있다가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고문당하고 잔인하게 취급당하곤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나는 항상 새로운 힘이 생겨나서 되살아나곤 했다.

몇 년 동안 여러 감옥을 거치면서 4개의 척추뼈와 다른 여러 뼈들이 부러졌으며 내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는 의사들은 이런 상처 자국과 내가 결핵을 앓았던 흔적을 보고는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학 서적에 의하면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기적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철의 장막 속에 숨겨져 지하교회를 대신하여 내가 외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형제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다.

## 잠시 동안의 자유—또다시 체포

1956년까지 나는 8년 반 동안을 감옥에서 지냈다. 체중은 상당히 줄었고 몸은 상처 투성이였으며, 짐승처럼 매맞고, 발길로 채이고, 조롱당하고, 굶주리고, 압박당하고, 무시당했다.

체포만 했지 아무런 소득이 없자 그들은 나를 풀어주었는데, 그러나 나의 감금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1주일 동안만 이전의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2차례 설교를 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불러서는 설교를 못하게 했고, 종교적인 활동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이제부터 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나는 내 교구민들에게 참고, 참고, 또 참으라고 가르쳐 왔는데…….’

경찰은 그 말을 꼬투리 잡고는 “당신이 그들에게 좀더 참고 견디라고 말한 것은 미국인이 와서 구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면서 생떼를 썼다.

또한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시대는 변하게 마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당신은 공산당이 계속 통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반혁명주의자들이나 떠들어대는 허무 맹랑한 말이다!”라고 그들은 호통을 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공식적인 목회 생활은 일단 끝이 났다. 아마도 당국자들은 내가 도전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더 이

상 지하 전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추측은 천만의 말씀이었다. 나는 비밀리에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했고 내 가족은 나를 후원해 주었다. 나는 다시 믿을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숨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다.

이 당시에는 내 경우를 예로 들면서 무신론자들의 악한 점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었다. 나는 전도 대원들로 조직된 비밀 조직망을 짚고, 그들은 공산당원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서로서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 주었다.

나는 나의 활동과 일거 일동에 대해서 세밀히 관찰하던 경찰들에게 다시 발각되어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8년 6개월 동안은 감옥에 있었던 반면에 3년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그 후에도 다시 5년 반 동안 투옥되어 있었다.

두번째 투옥 생활은 첫번째보다도 훨씬 악조건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육신의 건강도 금세 악화되어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공산당의 감옥에서도 지하교회에서 하던 지하 전도 사업을 계속했다.

**우리는 대책을 세웠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대씩 매질을 당하기로**

다른 죄수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은 엄격히 규제되었다. 누구든지 설교를 하다 체포당하는 날에는 심하게 매를 맞는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매맞는 것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수락했는데, 그 거래는 우리가 설교를 하면 대신에 그들은 매질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매질하는 것을 기뻐했다. 결국 양자 모두가 행복해진 셈이었다.

한 형제가 다른 죄수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쯤은 했을까? 그때 갑자기 간수들이 문을 세차게 밀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는 그를 “매질하는 방”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는 계속 매질을 하였다. 그런 후에 다시 끌고 와서는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는 그를 감옥 마루에다 사정없이 내동댕이쳐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혹사당해서 엉망 진창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몸을 추켜세우고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에 다시 이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자, 형제 여러분. 제가 끌려가기 전에 어디까지 했죠?”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평신도들이나 농민들이 성령을 받아서 설교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들의 가슴 속은 설교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삼엄한 상황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노라면 간수들이 와서 설교자를 끌어다가 죽도록 곤장을 치곤 했다.

‘켈라’ 감옥에서 “그레쿠”라는 한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맞아야 한다는 태형을 선고받았다. 그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닌 몇 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아주 느린 속도로 매질을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가죽 장화 발로 구타를 당한 뒤 끌려 나가기도

했다가 다시 늘어져서 끌려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었다. 몇 분간 구타를 당한 뒤 한참을 쉬고는 또 다시 구타를 당했으며, 어떤 날은 급소를 맞기도 했다. 그러면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았고 그는 회복되었다. 간수들은 그에게 원기가 회복되도록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주었다. 그런 후에 아주 천천히 죽는 날까지 매질은 계속되었다.

이런 고문을 주관하는 사람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의 하나인 “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렉은 공산당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되풀이했다.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내가 곧 신이다. 너희들의 생사에 관한 문제는 내게 달려 있다. 하늘에 있다는 신은 너희들의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모든 것은 전부 내게 달려 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를 살려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

그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곤 했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레쿠 형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한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의 깊은 뜻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군요. 당신은 정말로 일개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모든 애벌레는 한 마리의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죽이는 고문관으로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 ‘너희는 모든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처럼 살아온 많은 이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위가 인간으로서

잔학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좀더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당신의 참된 소명은 고문관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나가는 하나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렉은 희생자의 말 따위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마치 다소의 사울이 생전에 죽었던 스테반의 아름다운 간증 같은 것에 신경쓰지 않았듯이…….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후에 렉 자신은 이것이 그의 진정한 소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매맞고 고문당하는 공산당의 도살장에서 위대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면 “모든 정신은 육체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때때로 고문당할 때마다 우리는 아픔을 느낀다. 그 고통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존재에 열중해 있는 우리 영혼과 멀쩡이 떨어져 있는 그 무엇처럼 생각되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1주일마다 빵 한 조각이 주어지고 매일 더러운 비누가 주어질 때에도 성실하게 십일조를 떼어 놓기로 결심했다. 매번 열번째 주일마다 십일조를 바치던 대로 빵 한 조각과 비누를 좀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었다.

한 기독교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직전에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다음과 같았다.

“나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야 하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소.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도 역시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iero. 그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다 해서 마음속 깊이 원통해 하지는 마시오. 이 다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यो”

그들 부부의 대화하는 광경을 감시하던 비밀 경찰은 감동을 받았고, 후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티규 오크나’ 감옥에 “매치비치”라는 젊은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18세의 젊은 나이에 수감되었다. 그는 심한 고문으로 결핵을 앓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100여 병 정도의 스트렙토마이신을 보내 주었다. 그것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다.

그 감옥의 행정관이 그를 부르더니 소포 꾸러미를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있는 것은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약 상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포 꾸러미를 받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정상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젊은 당신을 감옥에서 죽게 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가 당신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내게 협조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 당신 동료들의 동정만 살피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상관 앞에서 당신에게 소포 꾸러미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럴 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재빨리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글쎄요, 나는 부끄럽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볼 때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수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군요.”

그 행정관은 그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기쁘군요. 당신이 다른 말을 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러면 다른 제의를 하겠소. 죄수들 가운데 몇몇은 이미 밀고자들이 되어 있소. 그들은 공산당이 되겠다고 하면서 당신을 비난하더군요. 그들은 이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그들을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고 싶소. 그들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만 알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목숨은 부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도 머뭇거리려는 기색이 없이 말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도록 가르쳤지요. 나를 배반하고 해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보 제공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당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는 대화가 끝난 뒤 돌아와서 내가 수감되어 있던 감옥에서 죽었다. 나는 그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본능인 살고자 하는 욕구를 초월했다.

만일 어떤 가난한 음악 애호가 있다면 음악 연주회에 가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까지도 쓸 것이다. 그런 그는 돈이 한푼도 없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으니까. 나 역시도 비애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



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감옥에서 나약하고 하찮은 사람들 속에서 위대한 성인들과 같이 감옥에 있게 된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었다. 이런 성인들과 신앙의 영웅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예외적인 사실은 아니다. 아주 놀랄 만한 일들이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하교회는 초대교회의 첫사랑으로 되돌아간 교회이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그리스도의 신부” 즉 그리스도의 몸체를 본 이후로, 감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지하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하교회의 숭고함과 희생 정신을 보아 온 것이다.

## 내 아내와 아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한 이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었다. 몇 년 후에야 그녀 또한 투옥되었다는 소식만을 잠시 전해 들었을 뿐이다.

기독교인 부인들은 감옥에 수감된 남자들보다도 더욱 심한 고통을 겪었다. 젊은 소녀들은 간수들에게 강간당하기도 했고, 가혹하리만큼 조롱당하고 음탕한 형벌을 겪어야만 했다. 여자들은 주로 운하를 건설하는 곳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는데,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짐을 져 나르기도 했다. 겨울에는 얼어붙

은 땅에 삼질까지 해야 했다. 매춘부들은 감독관이 되어서 신앙인들을 고문하는 일을 거들어 주기도 했다. 내 아내는 살아 남기 위해서 짐승처럼 풀을 먹기도 했다. 굶주린 죄수들은 운 하에서 쥐나 뱀을 잡아 먹기도 했다.

일요일마다 있는 간수들의 놀이 중 하나는, 여자들을 다뉴브 강에 밀어 넣고 고기를 잡게 하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대고 흠뻑 젖은 몸매를 감상하면서 희롱하는 것이었다. 내 아내 역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내 아들은 엄마, 아빠가 수감되자 거리에서 방황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 미하이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었고, 신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아홉 살이 될 때쯤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게 되자 그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경험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신앙 자체를 의문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또래의 아이들로서는 흔하지 않게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순교자의 가족을 돕는 것은 범법 행위였다. 그를 도와주었던 어떤 부인은 체포된 이후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구의 몸으로 살고 있다.

목숨을 걸고 미하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던 어떤 여인도 죄수들의 가족을 도와주었다는 죄목으로 8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수감 도중에 그녀는 심하게 걸어채여 뼈가 부러졌다. 그녀는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일생 동안 불구로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 미하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11세 때부터 미하이는 정규 노동자로서 생계를 이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수감된 지 2년 후에 그는 공산 감옥 철창 속에 있는 엄마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지저분해 보였고 깡말랐으며 거칠어진 손과 죄수들이 입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어서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미하이를 보자 그녀의 첫 마디는 “미하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간수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그녀를 미하이로부터 격리시켜 버렸다. 미하이는 엄마가 끌려나가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린 미하이는 바로 이 순간에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참 구세주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하이는 이후에 고백하기를

“기독교에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다른 설명들이 일체 없다면,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족하다”고 했다.

미하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날은 바로 그날이었다.

미하이는 학교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움을 해야 했다. 미하이의 학교 성적은 썩 좋은 편이어서 상으로 붉은 넥타이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초기 공산주의 개척자들의 서명이 있었다. 미하이는 “내 부모님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그들의 넥

타이는 절대 착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1년 후에 미하이는 기독교인 죄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다시 입교했다. 그러던 중, 성경에 반하는 글을 써야 했는데 그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

“성경에 반하는 논쟁은 불충분하고, 성경에 반대하여 인용된 글들은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교수는 성경을 한번도 읽어 본 적이 없음이 분명하다. 성경은 과학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퇴교당했다. 이 때문에 그의 학업은 2년이나 늦어졌다. 그러다가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신학 이론을 배웠다. 그것에 따르면 모든 것들은 마르크스의 관념에 따라서만 해석되었다. 미하이는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저항했다. 다른 학생들 역시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 결과로 그는 퇴교당했고, 신학 공부를 끝마칠 수가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 도중에 한 교수가 무신론적인 어조로 말을 했을 때 내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 수업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의 편을 들었다. 어느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 만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했다.

아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기독교인 죄수 범브란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사실이 발각되어 학교 당국자에게 불려가서는 퇴교당하곤 했다.

미하이는 상당히 굶주리기도 했다. 공산주의 국가에 수감된 기독교인 가족을 돕는다는 것은 엄청난 범법 행위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족이 고통당했던 실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형제 하나가 지하교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여섯 자녀를 남겨두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는데, 17세 된 딸과 19세 된 딸은 아무 직업도 구할 수가 없었다. 공산 국가는 정부가 직업을 주는데, 범죄한 기독교인 자녀에게는 직업을 주지 않았다.

기독교 순교자의 두 딸은 어린 동생들과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매춘부가 되었다. 14세 된 남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는 거의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몇 년 후에 수감되었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기도란 고작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 저를 다시 감옥에 넣어 주세요. 이 일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곧 이루어졌다. 그는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죄명하에 다시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제 그의 딸들도 더 이상 매춘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 경찰의 요구에 협조함으로써 직업을 구했고 밀고자가 되었다. 기독교인 순교자의 딸이라고 해서 모든 집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비밀 경찰에게 보고하였다.

그런 것이 윤리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행위일지라도 이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들이 여러분의 무관심 때문은 아닌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또한 그런 가족들이, 자유 세계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외롭게 버려져 있다는 것도……

### 제 3 장

## 출애굽

나는 14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으며, 이 기간 동안 성경은 물론 다른 책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쓰는 방법조차 잊어 버릴 정도였다. 기아, 마취, 고문 등으로 나는 성경에 쓰여있는 거룩한 말씀들을 잊어 버렸다. 14년이란 옥고를 청산하던 날 망각된 의식 세계 속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일했으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수일처럼 여기더라.”

이런 일이 있는 후 곧바로 나는 일반 사면으로 석방되었는데, 후에야 미국 여론의 압력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14년이란 세월 동안

성실하게 나를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체포당하면서 모든 것을 압수당했기 때문이었다.

석방된 성직자들은 조그만 교회를 하나씩 얻을 수 있었는데, 내게는 ‘을소바’ 마을에 있는 교회가 주어졌다. 예식을 담당하는 공산당 위원회는 그 교회 정원이 35명이며 단 1명도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내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신고하고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모두 내쫓아 버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내가 설교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인 교회를 시작하려는 노력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러한 사업이 지나는 숭고함과 위험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도 또 다시 지하교회를 시작했다. 내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하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 지하교회는 포기되지도 않았고 잊혀지지도 않았다. 미국 사람들과 여타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조그만 도시에 있는 한 형제의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형제가 깨우더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외국에서 형제들이 왔습니다.”

자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 많은 수가 우리 지하교회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있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순교자의 가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비밀 사업을 조직했으며

전도지 밀반입을 도와 주었다.

다른 방에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6명의 형제들을 접견했다. 한참 동안 이야기한 뒤에 그들은 이 집이 14년 동안 이나 옥고를 치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고 묻더니 보고 싶었노라고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우리는 몹시 우울해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고 상상했습니다. 기쁨에 넘쳐 있는 당신을 보니 믿어지질 않는군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재차, 내가 바로 수감되었던 사람이며,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 주었다는 기쁨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점차 정규적인 원조가 지하교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비밀 경로를 통해서 성경책을 비롯한 다른 기독교 문서를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기독교 순교자의 가족을 도와 주었다.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서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의 인사를 보내 왔다.

우리는 세뇌 교육을 받는 동안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술하게 들어 왔지만, 미국, 영국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조언을 받아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방



법을 발전시켰다. 그들이 비밀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비밀 경찰은 그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런 방법으로 은닉하여 들여온 성경의 가치는, 항상 성경 말씀에 젖어 있는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은 해외에서 우리를 후원해 주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물질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 남을 수가 없었으며, 공산국가에서 살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직자와 순교자들도 같은 상황이었다.

우리는 영국의 ‘유럽 기독교 전도협회’(The European Christian Mission of Great Britain)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물질적인 원조와 더욱 더 커다란 정신적인 도움을 증거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도 흡사했다.

지하교회를 다시 시작한 일 때문에 나는 또 다시 체포되는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 이 당시에 ‘유대인에 대한 노르웨이 선교단’(The Norwegian Mission to the Jews)과 ‘히브리 기독교 동맹 단체’(The Hebrew Christian Audience)가 내 몸값을 배상해 주었는데, 내 몸값이 2,500파운드나 되었다. 그리고 나는 루마니아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 왜 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루마니아를 떠났는가?

만일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 자유 세계에 가서 지하교회의 소식을 전하라는 지시만 없었다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이름으로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였다.

내 몸은 비록 자유 세계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 있다.

여러분이 지하교회에서의 용기 있는 사업과 고통을 듣고도 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루마니아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루마니아를 떠나는 것은 바로 나의 사명이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내게 말했다. “서구 세계에 가서는 당신이 이곳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는 우리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한 마디도 누설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보복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선, 돈으로 깡패들을 사서 당신을 살해하거나 납치할 수도 있습니다.”

납치당할 경우에 내가 본 대로 말하자면,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납치당해서 루마니아까지 오게 된 그리스 정교회 주교인 ‘바실레 톨’과 같은 감방 안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그는 손톱이 모두 뽑혀 있었다. 나는 베를린에서 납치당한 사람들과도 함께 있었던 적이 있으며, 최근에 루마니아 시민들 가운데서 이탈리아와 파리에 이민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납치당한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여자와의 관계가 난잡하다는 등, 절도 행위나 혹은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상들을 거짓말로 퍼뜨려서 당신을 도덕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서구인, 특히 미국

인들은 열간이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잘 속기도 하니깐요.”

이렇게 협박한 후에, 그들은 내가 서구 세계로 가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세뇌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다.

서구 세계에는 나와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으나 잠잠히 침묵을 지키는 이들이 많다. 몇몇 사람은 공산당에게 고문을 당한 후 공산주의를 찬양하기까지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나 역시도 그렇게 침묵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덕택에 1965년 12월에 나와 나의 가족은 루마니아를 떠날 수 있었다.

나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체포하도록 명령하고 고문하도록 명령했던 육군 대령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공허한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봉사를 했다.

나는 공산 세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만은 사랑한다. 죄는 밋지만 죄인들은 사랑한다. 나는 진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죽일 수는 있으나,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사랑은 죽일 수 없다. 나는 공산당 이라든가 나를 고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한도 갖고 있지 않다.

## 제 4 장

# 신앙의 능력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들 조상이 애굽에서 구출되고 애굽인들이 홍해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승전가를 천사도 함께 불렀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인간이므로 그들의 탈출을 즐거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좀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애굽 사람들도 역시 내 창조물이 아닌가? 그들 역시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내 슬픔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여호수아 5 : 13).

여호수아가 만났던 사람이 만약 인간이었다면, “나는 당신 편이다” 혹은 “반대편이다”, “나는 중립이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만난 그 존재는 다른 세계에서 왔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고 물었을 때, 기상 천외한 대답인 “Nay”(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Nay”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존재는 어느 한 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세계에서 왔으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되어 만민이 서로를 연민과 동정심, 불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대한다.

인간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불 때 공산주의는 우리의 대적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잔학하고 야만적인 부류들이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산 감옥에서 겪었던 고문도 나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하도록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다. 어찌 내가 그들을 증오할 수 있으랴?

그러나 결코 그들의 친구는 될 수가 없다. 우정이란 두 마음 속에 한 영혼이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공산주의와는 한 영혼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조차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당신은 공산당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라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난 난삽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이다. 나는 공산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그것이 타도되는 날까지 힘써서 싸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나는 “Nay”라는 영역, 즉 공산주의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생의 참목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영생이라는 좋은 소식을 안겨 주는 것이다.

내 주이신 그리스도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신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위대한 선생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왔다.

성 매커리는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을 열심으로 사랑한다 해도 한 사람에게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노라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 칭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사랑은 모든 이를 포용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성 어거스틴은

“만일 모든 인류가 의인인데 한 사람만이 죄인이라 해도 그리스도는 이 한 사람을 위해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개개의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기

독교의 가르침은 확실하다. 공산주의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공산주의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공산 감옥에서, 목에 50파운드나 되는 쇠사슬을 감고 벌겍게 달아오른 화저로 고문을 당하고, 물도 없이 소금을 목 안 가득 삼키게 하고, 굶주림, 채찍질, 추위로 고통당하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형제를 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때로는 우리를 고문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감옥에 잡혀 오기도 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공산당원, 심지어는 공산 세계에 있는 위정자까지도, 어느 날 갑자기 적으로 낙인찍혀서 감옥으로 끌려오는 일이 비밀비재했다. 고문당한 사람과 고문했던 사람이 같은 감방 안에 갇힐 때도 있다.

비기독교인들은 예전에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기도 했으나, 기독교인들은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공산당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빵 한 조각으로 일주일을 버텨 나갈 당시에 기독교인 형제 하나가, 이제는 같은 죄수가 되어 있는 병든 공산당원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빵 조각과 생사를 가름하는 약을 아낌없이 주는 것도 본 적이 있다.

기독교인이었으며 루마니아의 전 수상이었던 ‘올류 마뉴’의 마지막 유언은 “만일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가 타도된다면 모든 기독교인의 신성한 의무는 거리로 뛰어나가서 위험을 무릅

쓰고라도 압박받던 민중이 공산당에게 내리는 정당한 분노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변화받은 후 얼마 동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처럼 느꼈던 적이 있다. 거리를 걸을 때 내 걸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많은 무리를 보고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으며, 내 마음 속에서 강하게 느껴진 문제는 이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교인 중에 누군가 죄를 지으면 나는 몇 시간을 울곤 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간절한 마음은 항상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독한 감옥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전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큼 굶주려 있었다. 우리는 바보가 될 정도로 마취되어서 뼈만 앙상해졌으며, 주기도문은 외기에 너무나도 길었다. 그것을 외울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집중시킬 수도 없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기도뿐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영광스러운 날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든지 보여 주겠다.”

즉시로 나는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태양에서 나오는 코로나의 광채와 같이 타오르고 있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건넸을 때 자신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것과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예외적일



수가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잔학한 짓을 저질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지만, 많은 물이 흘러 넘쳐서 홍수를 이루어도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으며 우리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다. 죽음은 이 세상의 빈부, 노소, 인종, 국가에 차별 없이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엄습해 오는 것이지만,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감싸 준다. 그리고 사랑의 화신인 그리스도는 공산당과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목사 한 사람이 우리 감방에 내던져졌다. 그는 반쯤 죽어 있었고 온몸은 피투성이였다. 지독히도 매질을 당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를 정성껏 닦아 주었다. 몇몇 죄수들은 공산당을 저주하기도 했는데 그는 신음을 하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 우리는 어떻게 감옥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었는가?

14년간의 감옥 생활을 되돌아볼 때 가끔 그 기간이 아주 행복했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까지도, 그렇게 잔혹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것처럼 행복해 한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다. 설령 그 일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치 나이팅게일이란 새가 일단

노래가 끝나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도 역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뻐서 춤까지 춘 적이 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찌면 그렇게도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나는 감옥에서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묵상했다.

“너희들이 본 것을 보는 눈들에 복이 있으리라.”

그때 막 제자들은 공포 속에서 지냈던 팔레스타인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은 억압받는 나라였다. 곳곳마다 압박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질병, 전염병, 굶주림과 슬픔을 맛보기도 했다. 그들은 울부짖고 있는 아내와 부모를 남겨두고 감옥에 끌려간 애국자의 집을 찾아갔다. 참혹한 광경이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본 것을 보는 눈에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단지 고통만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야 할 목표, 최선의 완성자,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뭇잎 사이로 기어다니는 몇 마리의 추한 벌레와 곤충에게도 아름답고 오색 찬란한 나비로서의 삶이 다가오며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며 즐길 때가 오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내 주변에는 읍과 같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읍이 결국에는 어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는 시험을 당하기 전보다도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

내 주위에는 가난한 나사로처럼 굶주리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종기가 잔뜩 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천사들이

그들 모두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곁에 있는 초라하고 나약한 순교자들이 내일은 빛나는 면류관을 쓰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다소의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몇몇 사람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비밀 경찰 장교들은 기독교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것이다.

우리에게 매질을 했던 간수에게서도 사도 바울에게 매질했던 빌립보 성의 간수가 변화된 것과 같은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묻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죠?”

배설물로 더럽혀진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조롱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중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산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곳도 바로 감옥 안이었다. 그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싹텄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고, 고문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내 친척 중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는데, 그들을 죽인 자들이 변화된 곳도 바로 감옥이었다. 그들이 변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그곳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산 감옥에서의 그들에 대한 선교 계획이 떠올랐던 것이다.

우리가 개미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계신다. 인간적인 관점에

서는 십자가에 묶여서 배설물처럼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순교자가 당할 고난을 일컬어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감옥에서 보낸 14년이란 세월은 우리에게도 실로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공산주의자들의 죄악도, 우리 눈에는 사력을 다해 저항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가벼운 것일 수도 있다. 이미 반 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그들의 독재 정치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한 순간의 죄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고,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푼다. 천국 문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그들을 향한 사랑의 불 또한 꺼져 있지 않다. 그들도 모두 회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쳐야 한다.

단지 사랑만이 공산주의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공산주의의 맹종이란 개념과는 명백히 구별되며, 많은 교회 지도자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 히틀러는 반공산주의자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함으로써, 결국은 공산주의자를 전복시키는 대신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감옥 내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선교를 계획했다. 그 계획에 따라 먼저 위정자에 대한 선교를 생각했는데, 몇몇 선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은 연구한

것 같았다.

어떻게 노르웨이가 그리스도 편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랍 왕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왕이 정복당했을 때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헝가리는 스테반 왕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화되었다.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종족 전체가 추장을 따랐다.

우리는 매우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변화시킬 만한 힘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나 예술가 같은 지도자와 투쟁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을 일정한 틀 속에다 집어넣고 획일화된 형태로 만드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 편에서 승리할 경우, 여러분은 그들만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싸워서 이긴 셈이 되는 것이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다른 사회 체제가 갖지 못한 중앙 집권제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몰몬교로 개종했을 경우 이런 이유만으로 전 미국 시민이 몰몬교도가 되지는 않겠지만, 모택동이나 브레즈네프, 차우셰스쿠와 같은 독재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전국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렇듯 지도자의 영향력은 실로 큰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공산당 지도자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기가 희생시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다. 소련 내의 대부분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결국은 감옥에서 그의 생을 끝마치거나 동료의 총부리에

사살되기도 했다. 중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듯이 보이던 상부 각료급 인사들조차 반혁명주의자로 몰려 최후를 장식한다. 총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사살되지 하여 결국은 끝장이 나는 셈이다. 최근에는 소련의 각료급인 세페린과 유고슬라비아의 수상인 랑코빅이 더럽혀지고 닳아빠진 누더기처럼 내쫓기고 말았다.

## 어떻게 정신적으로 공산주의를 공박할 수 있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정략가조차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이들조차도 당 노선이 바뀌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비밀 경찰의 차에 납치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 개인적으로 많은 공산당 지도자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인식과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편에서 공산 통치들을 이긴다는 것은 핵폭발의 위협에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며, 그 나라 세금의 상당액이 국방비로 계속 유출되는 것을 막아, 굶주려 있는 인류를 구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공산당을 이긴다는 것은 국제적인 긴장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산 통치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뉴기니와 마다가스카르와 같이 선교하기가 몹시 힘든 지역에

서는 노동자들이 공산당과 싸워서 이길 경우에 기독교에 전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 전 지역이 다르게 될 것이다.

나는 변화받은 공산당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나 자신도 유년 시절에는 호전적인 무신론자였다. 일단 변화된 무신론자와 공산주의자들은 무척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모든 영혼이 대등하지만, 선교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정글 지대에 홀로 떨어져 살고 있는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후에 수천 명을 구원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에, 그가 태어난 조그만 마을이 아닌 세계적인 영적 본부가 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전도자들을 택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또 로마에 가기까지 많은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뱀의 혀를 간지럽혀서 뱀을 웃게 할 수도 있다. 뱀의 머리는 튀니지나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바와 북경 사이의 그 어떤 곳에 있다. 공산 세계는 모든 신중한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 선교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판에 박힌 듯한 형식적인 일은 포기해야 한다. 성서에서는 “거짓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적고 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영적인 견지에서 정면으로 공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은 방어 전략이 아니라 공격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공산주의를 향해서 교회는 항상 방어적인 자

세만 지켜 왔다. 한 국가를 빼앗기고 나면 또 다른 국가가 공산화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인 바 교회 내에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시편에 “하나님은 철장으로 산산히 부수리니”라는 말씀이 있다. 철의 장막도 하나님께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비밀리에 합법적으로 일했으며 결국은 승리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는 지혜가 또 필요하다.

나는 공산당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몬을 니이거라고 부르고, 요한 마가로 불렀던 일 등등……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하면서 비밀 이름을 사용한다.

나는 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원하시면서 정확한 지명을 밝히시지 않고 그냥 “마을로 가서 물동이를 나르는 남자를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알 수 있다. 우리도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것처럼 비밀 신호들을 사용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산 국가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업 조직을 지도해 온 서구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공산당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정책이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칼 마르크스의 영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선한 사마리인의 동정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누차 이야기한 바 있다. 나는 지금도 공산 국가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투옥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철의 장막 속에서는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계속 비밀 선교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와 친교를 맺고 있는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장소라 할 수 있는 동구에서 공식 목사가 되고자, 기꺼이 서구에서의 높은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서구 교회 지도자에게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인간의 말은 서로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사냥이라든가 낚시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것에, 그 다음에는 생산한 생활 필수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서로서로 표현하는 데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과 고귀한 영적인 생활을 표현하기에는 말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족한 것만 같다. 제한된 언어 수단으로는 도저히 그 세계를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마적인 잔인성을 표현하는 데에도 언어 수단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러분이라면 나치에 의해 화로 속에 던져진 사람의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겪었던 일들과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루마니아에 공산 세력을 들여온 ‘루크레티우 파트라스

키누'와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 그의 동지들이 그를 감옥에 투옥시킨 것이었다. 그는 멀쩡한 사람이었으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 정신병원에 감금되었고, 결국에는 정신병자가 되었다.

전 당서기였던 '아나 파커'에게도 똑같은 일이 자행되었다. 전기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착용하게 되면 꼼짝도 못하는 자켓이 입혀지기도 했다.

우리는 중공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공포감을 느낀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소련 군대 소속의 테러범들이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중공의 감옥에서 기독교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상상해 보라!

명성 높은 중공의 한 기독교인 작가와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여 귀와 혀와 다리 모두를 절단당했던 일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나쁜 일은, 고문을 하고 인간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생각을 절망 상태에 빠뜨려 왜곡시킴으로써 젊은 세대와 어린이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그런 삶을 교회 지도자적인 위치에 세움으로써, 이들이 교회 강단에 서서 젊은 10대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대신에 주님을 증오하도록 가르치게 하고 있다.

한 기독교 수난자가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호전적인 무신론자가 되어 버린 자식들로부터 경멸 받았던 참담한 비극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잉크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의 피로

기록된 책이다.

다니엘 시대 때, 세 청년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도 나온 후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전혀 없었듯이, 공산 감옥에 갇혔던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게 시달리던 고통을 보복하고 싶을 만큼 마음발이 거칠어진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당신이 꽃을 발로 짓밟으면 그 꽃은 당신에게 향기로서 보답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고문당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려 했다. 우리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처럼 순교하지는 못했다. 나는 석방되었고 루마니아를 떠나 서구 세계에까지 왔으며, 서구 세계에는 철의 장막과 죽음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지하교회와는 상반되는 감정을 가진 교회 지도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구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공산당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공산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와 불교 신도에 대한 선교 계획은 갖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교 계획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공산당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케제이가 인디언들을 사랑하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인들을 사랑해서 존경받을 만한 선교회를 조직했던 것처럼 그런 선교를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이다.

자기 만족적이며 무성의하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공범자들처럼 행동하는 서구 기독교 지도자의 불성실한 태도가 공산당을 더욱 강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많은 지지력을 얻고 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이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받으려 했을 때 단호히 거절당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공산당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양떼도 사랑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공산당을 이기지 못하면 공산당은 서구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서구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근절당할 것이다.

## 역사상 교훈이 무시되고 있다.

처음 몇 세기 동안 북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가 부흥했다. 그곳에서 성 어거스틴이 나왔고 키프리안과 아타나시우스와 터툴리안이 배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슬람교 신도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잊고 있었다. 그 결과 이슬람교도들이 북아프리카를 침략해서는 몇 세기 동안에 기독교를 근절시켜 버렸다. 북아프리카는 지금 이슬람교 세력에 놓여 있으며 기독교 선교단에 의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 후스, 루터, 칼빈의 종교적인 관심사는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압도하던 교황의 지배권에서 벗어나자는 유럽인들의 관심사와 일치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공산당과 그들의 희생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하교회의 관심사와 자유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자유인들의 활력 있는 관심사는 일치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은 없다. 공산당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군사적인 공격이 발생할 경우 수억의 희생자를 내는 새로운 세계 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서구 통치자들은 세뇌되어 있어서 공산당을 타도하려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곧잘 약물 중독, 폭력 행위, 결핵 같은 것들은 퇴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내는 공산당이 퇴치되기는 원하고 있지 않다.

소련 작가인 ‘아일야 에렌빅’은 만일 스탈린이 그의 일생 동안 자기가 무고하게 희생시킨 희생자들을 기록한다면 평생 한다 해도 그 일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루시초프는 20차 전당 대회에서 “스탈린은 정직하고 무고한 수천 명의 공산당원을 제거했다. 17차 전당 대회에서 선출된 139명의 정식 회원과 18명의 후보자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98명이 후에 체포되거나 총살당했다”고 보고했다. 그런 그들이 기독교인에게 행했을 일을 생각해 보라! 호루시초프는 스탈린을 비난하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 자행했다. 공개되어 있던 소련 교회의 절반 가량이 1959년 이래로 폐쇄되고 있다.

중공에는 스탈린 시대보다 더 야만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개적인 교회 생활은 완전히 중지되고 있다. 나는 소련과 루

마니아에서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지금 막 전해 들었다.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테러와 허위로 가득 차 있으며, 젊은 세대는 모든 것들을 증오했고, 특별히 기독교인을 증오했도록 교육받고 있다.

소련에서는 장교가 교회 정문에 서서 어린이들을 감시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교회 가는 것이 발각된 어린이들은 때 맞고 쫓겨난다. 서구 기독교를 파괴할 미래의 파괴자들이 세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타도할 수 있는 단 한가지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교도였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야만족인 튜튼족과 바이킹족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던 힘일 것이다. 그 힘은 피의 숙청을 타도할 수 있다. 이 힘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지하교회에서 선사한 복음의 힘일 것이다.

이런 지하교회를 지지하여 돕는 것은 고통당하는 형제들과 일치감을 갖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국가와 교회의 존재 여부가 달린 문제이다. 이 교회를 뒷받침하는 일은 자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자유 세계 정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하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편에 서서 공산 통치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수상이었던 게오르규 데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최악된 삶에서 돌이킨 후에 거듭난 사람으로 최후를 마쳤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숨어서 주님을 믿는 정부 당원들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널리 퍼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 정부의 정책 속에서도 참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잔인한 무신론자들로 구성된 공산 정당인 '티토 정권'

과 ‘고물가 정권’이 변화될 뿐 아니라 기독교와 자유 세계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공산당에게도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더 큰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국가들 사이에 우호를 조성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공산 국가들끼리 개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공산주의는 하늘에 있는 가상적인 낙원 대신에 지상 낙원이 건설되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의 백성은 굶주려 있으며 식량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공산당은 그네들의 지도자들을 믿어 왔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신문 지상에서 스탈린은 대중 학살자이고 흐루시초프는 멍청이라는 사실을 읽고 있다. 라코시, 게로, 아나 파커, 랑코비취와 같은 민족적인 영웅들 역시 마찬가지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산당은 이제 그들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굳건한 위치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교황이 없는 카톨릭 신도와 다름 없다.

공산당원의 마음은 공허해져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도록 되어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영적인 면에서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진공 상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공산당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공산당에 의해 조롱받고 고문당한 기독교인들은 인간적으로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잔학성을 기억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고 있다. 이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 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편견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골고루 비취주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기독교인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서구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형제들을 잊고 원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적은 없다. 그들은 공산당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피로 물든 손으로 식사를 같이 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은 잊혀지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독에 있는 복음 교회와 카톨릭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려 12억 5천만원의 돈을 희사했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기부했다.

세상에는 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보다 더 굶주려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일 독일, 영국,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교회가 구제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늘린다면, 그것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보내져야 하겠지만 먼저 기독교 순교자와 그 가족에게 보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 단체에 의해 보석되었다. 그 사실은 기독교인도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예는 내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나 한 사람만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서구 세계의 기독교 단체들이 책망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대 교인은 새로운 교회가 유대인만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시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변을 받았다. 그 질문은 20세기에 나타났다. 기독교는 서구 세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도 미국과 영국과 여타 민주 국가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한 손은 서쪽을 향해, 다른 한손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기도 하며, 또한 공산 국가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피흘려 주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은, 사랑과 열심으로 충만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소련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열심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

젊은 공산당원은 이례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하며 공산주의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 서구 기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대신 공산주의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여 공산 정권이 승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죄를 두둔하고 있다.

## 내가 석방되었을 당시 발견한 사실들

내가 감옥 생활에서 석방되어 다시 아내와 함께 있게 되자 내내는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이에 내가 이제부터는 종교적으로 은둔 생활을 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아내 역시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노라고 했다.

나는 청년 시절에는 상당히 활동적이었다. 그러나 감옥에서, 특히 몇년 동안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따라서 묵상에 잠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격렬함도 고요해졌고, 공산주의는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내 생각은 하늘에 있는 신랑 예수의 품안에 있었다. 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감옥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석방될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은 없었으나, 만약 석방될 경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놀랍게도 시시각각 떠올랐었다. 나는 항상 은퇴해서 황무지 속에서라도 신랑 예수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진리”이며, 신학이란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의 기록”이다. 완전한 정통파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에 대한 진리”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며, 너무나 많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굶주리고 매질당하고 기만당했을 때, 우리는 신학적인 교리와 성경을 잊고 있었다. 즉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진리”를 잊었으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살았다.

성경에는 “너희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날에 인자가 홀연히 오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받는 칠혹 같은 암담함 속에서 인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감방 벽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시고 방안을 온통 빛으로 밝혀 주셨다.

영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고문관들은 우리를 기분내키는 대로 취급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누릴 기쁨 때문에 이런 기쁨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나 무엇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다고 했던가? 내 마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원치 않았다. 나는 어떤 전쟁에도 나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이 한창 전쟁 중이라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감옥을 떠나기 앞서서 가졌던 생각은 그저 조용히 있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석방된 바로 이튿날부터, 나는 감옥에 있을 당시에도 알지 못했던 공산주의의 추악한 모습과 맞부

닫치고 있었다.

계속해서 나는 위대한 설교자,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 주교까지 만나 보았는데, 그들은 내게 그들이 양떼를 배반하고 비밀 경찰의 밀고자가 되어 있노라고 슬픔어린 표정으로 고백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위험이 따를지라도 밀고자의 생활을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들 모두 한결같이 부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자신들을 속박했던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새로운 발전상과, 내가 구금되기 전에는 자행되지 않았던 일들을 설명했는데, 내통자가 되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교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이기도 했다.

모든 도시에마다 예배 의식을 통제하기 위한 당의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공산 비밀 경찰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궁금할 때마다 어떤 신부나, 목사이든시간에 불려서는 누가 교회에 왔었으며, 누가 자주 성찬을 받으며, 종교에 열심인 자는 누구이며, 누가 다시 입교했으며, 무엇을 고해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만일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물러나야 했고, 그 자리는 정보 제공을 더 잘해 주는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비밀 경찰에게 정보 제공을 했다. 비록 어떤 목사들은 특정한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는 반면, 또 어떤 목사들은 양심이 강박해져서 그대로 말하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밀고를 했고,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사실까지도 말해 버렸다.

또 기독교 순교자의 자녀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어 왔던 가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했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나는 붉은 깃발 아래서 개최되는 주교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곳에서 공산당들은 “선택된 지도자”들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결의했고, 나는 그제서야 공산당에 의해 추천된 사람만이 공식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거룩한 성전에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을 깨달았다.

선한 목자와 삿꾼 목자, 선한 전도자와 거짓된 전도자는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 교회 역사상 최초로 무신론 정당으로 승인된 중앙 공산당 위원회는 종교를 말살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임을 선언했고 교회를 다스릴 사람들을 결정하고 있었다. 어떤 꿑꿑이속이 있어서 교회를 지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임에 틀림이 없다.

레닌은 “모든 종교적인 생각과 신에 대한 생각, 장난삼아 신을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매우 나쁜 타락이며 인간에게 가장 지독한 전염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수백만 가지의 범죄 행위, 추악한 행위, 난폭한 행위와 육체적인 전염병도 “신”이라는 신비하고 영적이라는 관념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모든 소련권에 속해 있는 공산당들은 전부 레닌의 후예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암, 결핵, 매독보다 더 나쁜 것이므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그들과 어우러져서 협력하고 타협하고 있다.

나는 무신론주의가 주입된 어린이와 젊은이를 본 적이 있는데, 공식적인 교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중화시키려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았다.

수도 부카레스트 시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10대들의 집회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중오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이런 사실 때문에, 나는 어떤 고문 아래서도 중오하지 않던 공산주의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내게 행한 그들의 소행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영광 돌리는 일에 위배되고 있고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는 일백만의 영혼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증오했다.

전국에서 농부들이 나를 만나러 와서는 집단 농장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의 소유였던 들판과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굶주린 노예가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먹을 빵조차도 없다. 옛날 가나안 땅처럼 풍요한 이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와 과일은 없었다.

형제들은 나에게 공산 정부가 그들 모두를 도둑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래는 자기들 소유였으나 이제는 집단 농장이 되어 버린 땅에서 도둑질을 해야 했으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와 공장에 만연되어 있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도 없었다. 지식인 계층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확신과는 달리 신은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과 사고가 파괴되거나 왜곡되고 있다.

젊은 소녀들은 공산당 청년 조직대에 불려가서 기독교인 총각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힐난받고 협박당했던 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키스할 대상마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앞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들이 극도로 거짓되고 추악해졌다.

그때 오랜 동료이며 절친한 친구였던 지하 교회의 전투 요원을 만났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은 몇 사람과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투쟁을 시작한 몇몇과도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그들과 합심해서 투쟁할 것을 요청했다. 나는 그들이 직접 기록하여 만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비밀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위대한 성자 안토니를 기억한다. 그는 광야에서 30년을 보냈는데,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의견 대립으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는 명상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나는 또한 클레보의 성 버나드를 기억해 보는데, 그 역시 산 깊은 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군 전쟁의 무모함과, 텅빈 무덤을 차지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수도원을 떠나 십자군에 대항하기 위해 하산했다.

그들이 그러했듯, 나 역시도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기타 위대한 성인들처럼 은둔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다. 과연 그것은 어떤 종류의 싸움이 되겠는가? ……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에게 간증을 해 왔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악마와 같은 공산 체제를 증오했고, 이런 잔인한 전체정치를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복음의 능력으로 지하 교회가 더욱 강해지기를 원했다. 나는 루마니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공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어려움에 부딪힌 것은 서구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그들의 무관심이었다.

시나아프스키, 다니엘이라는 두 명의 공산 작가가 동료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세계의 작가들은 항의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토레이의 신앙 책자와 성서 단행본과 같은 소위 “악의 있는” 기독교 출판물들을 유포하는 데 가담했다는 이유로 쿠지크 형제가 구형을 받았을 때 누가 그 형제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는가?

설교집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프로코피에프 형제의 형편을 누가 알고 있거나 한가?

소련 내에서 비슷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던 유대인 기독교 신자 그룬발트와, 이 사실들로 인해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이 사람의 아픔을 누가 알아 주기라도 하는가?

나는 내 아들 미하이가 나와 격리될 때 느꼈던 아픔으로 미루어서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의 신앙의 영웅들이며 성자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사나운 맹수에게 내던져진 기독교인들, 동료의 쇠사슬에 입맞추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머리 숙여서 그들의 쇠사슬에 입맞추었다.

서구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순교자의 이름 같은 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도 않는다. 그들이 고문당하고 투옥되어 있을 동안 그들은 배신하고 부인했던 소련 주교들과 그리스 정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은 뉴델리와 제네바 같은 회의 석상에서 훌륭하다는 명성을 얻고 있다. 거기에서 그들은 소련에도 종교적인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교회 협회 지도자들은 니코딤이라는 불세비키 대감독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에게 키스했다.

“그들이 세계 교회 협회라는 권위 있는 이름으로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감옥 속에서는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먹었던 것과 같은 씻지도 않은 더러운 배추와 창자를 먹고 있었다.”

지하교회는 기회가 생긴다면 내가 그 나라를 속히 떠나서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공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사랑하지만 공산주의는 고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공산당 비밀 경찰이 내게 공산주의를 언급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전하라고 하던 그때의 일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사실 그럴 수가

있을까? 소위 순수한 복음만을 외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공산당 비밀 경찰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도 공산당 비밀 경찰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들은 아닐까?

나는 순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은 모른다.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이 순복음인가?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헤롯은 죄인이다……”라는 말도 감히 했다. 그는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했다. 예수님은 산 속에서 순수한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설교라고 지칭했던 “화 있을 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스도가 고난당했던 것은 흔히 말하는 순수하지 못한 설교까지 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설교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죄는 그 자체의 진상으로써만 규명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죄인이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복음은 모두가 순수한 복음이 못된다.

지하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서구 세계에서도 더 이상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나는 이른바 “반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공산주의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히틀러는 반공산주의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재자였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

## 왜 나는 서구 세계에서 고통받는가?

나는 공산 국가에서 겪었던 것보다 서구 세계에 와서 더 많은 아픔을 느낀다.

내 고통은 무엇보다도 “고난당한 예수를 따르기 위해 고난 받는다”라는 고대 라틴 격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지하교회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공산 진영에서는 인자와 그의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안일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않는다. 지으면 뭐하는가? 그들이 체포되면 집이 압수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새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체포하게 되는 그럴 듯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즉 공산당이 그 집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당신 아버지가 죽었다 해도 장사지 내지 말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

누가 당신의 어머니이며, 누가 당신의 형제 자매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이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어머니요 형제 자매인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부인하고,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부인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것들을 혈연 관계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지하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지근한 교인은 하나도 없다. 지하교회의 예배 의식은 1900년 전의 초대 교회와 같다. 설교자는 정리되고 세련된 신학을 알지도 못하거나, 설교하는 데 있어서 기교 같은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신학 교수들은 유월절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었다.

공산 국가에서는 성경이 귀해서 성경 구절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설교자들 역시 성경책 없이 몇 년을 감옥에 구금되어 왔다. 신앙을 표현할 때 “아버지”란 말은 더 많은 뜻을 표현하는 쓰인다. 이 말에는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그들은 매일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빵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불결한 야채가 주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한 읍과 같은 신앙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하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서구 세계의 교회 속에 내재해 있는 공허함으로는 충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공산 감옥에서 겪었던 것보다 서방 세계에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서구의 문명이 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왈드 슈펩글러는 『서구 문명의 몰락』(*Decline of The West*)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의 정신 문화가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엄청난 빈부 격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전쟁과 혁명, 무신론주의, 염세주의, 비관적인 사고, 금욕주의, 비윤리적인 것들, 그리고 이혼과 산아 제한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피흘리게 하고 있

으며 또한 죽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스, 로마와 같은 고대 국가가 멸망하는 시기와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1926년에 쓰여졌는데, 그때 이후로 민주주의나 유럽 문명의 절반 가량은 사멸하고 있으며 쿠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서구 세계의 나머지는 잠자고 있다. 그러나 잠자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산당이다.

동구권의 공산당은 절망 상태에 처하여 그들의 환각 상태가 깨어졌으나, 서구 세계의 공산주의는 위험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 서구 세계의 공산당은 공산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인성과 빈곤, 종교적인 박해에 대한 나쁜 보고들을 좀체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꾸준히 그들의 신념을 상류층의 휴게실, 지식층들이 모여 있는 사교장, 대학, 빈민굴과 교회 등 어느 곳에든지 전했다.

서구의 신학자들은 그러는 동안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만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1493년, 콘스탄티노플이 모하메드 2세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수세기 후에 발칸 반도가 기독교 국가에 속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슬람교 국가에 속하게 될 것인지 그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포위된 도시에 있던 한 지역의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만 논의하고 있었다고 한다.

“성모 마리아의 눈빛은 무슨 색깔일까? 천사들은 과연 남성일까, 여성일까? 만일 파리 한 마리가 성수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파리가 거룩해질까, 아니면 물이 오염될까?”

이것은 전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발행되고 있는 기독교 책자들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의 위협과 지하교회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여지껏 논의된 적이 없다. 신학적인 문제, 의식상의 문제,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다.

휴게실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탄 배가 침몰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실의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들고 나와 고립된 섬으로 피난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대답했고, 어떤 사람은 “세익스피어 전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한 작가만이 올바른 대답을 했는데, “나는 보트 만드는 법과 해변에 도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 책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읽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모든 교파와 신학자들이 자유를 지키고 공산당의 박해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곳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어떤 확고한 신학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유, 단지 자유만이 진리를 줄 것이다”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사소한 것에 관해서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공산주의와 독재 정치에 대항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단결해야 한다.

나는 철의 장막 뒤에서 증가되고 있는 교회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처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966년 6월에 소련 신문인 『이즈베스차』지와 『테레벤

스카이스 지근』지는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녀를 죽여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가르친 소련 침례교회 목사의 가르침을 폭로했다. 이것은 옛부터 있었던 인신공희(人身供犧)에 대한 비난이었으며, 통상 유대인을 비난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

1959년에 한 소녀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라자로비치”라는 죄수와 나는 루마니아에 있는 클루즈 감옥에 함께 있었다. 그는 30세였는데, 그의 머리는 고문을 받아서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변해 버렸다. 그는 아주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에게 손톱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그가 범하지도 않은 죄를 고백하라면서 손톱까지 뽑아 버렸던 것이다. 1년 동안 고문당한 후 그는 무죄가 판명되어 석방되었으나, 자유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영원히 실성한 사람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침례교회를 반대하는 소련 신문의 어리석은 기고글 보고는 비웃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피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서구 세계에 있으면서 눈앞에 이러한 광경을 떠올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공산당의 손발 노릇을 한 ‘알렉세이’ 주교와 ‘니코딴’ 대주교가 소련 정권과 연합한 것을 극렬히 반대하던 ‘카루가’의 ‘엔모젠’ 대주교와 다른 7명의 주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일 옆방에서 루마니아에서 공산당에 저항했던 주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이와 같은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주교들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니콜라이 에쉬리만’과 ‘글레이프야쿠닌’ 목사는 교회에 신앙의

자유를 요구한 이유로 장로들에 의해 징계되었다. 서구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블라디미레스티’의 요한 신부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표면상으로는 단지 성직자에 대한 징계였다. 그러나 공산 국가에 있는 모든 공식적인 교회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들도 비밀 경찰들과 손을 잡고 일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 징계당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고문, 구타, 약물 중독 등으로 더 커다란 고통을 당한다.

공산 진영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진다. 고문관들을 생각할 때에는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또, 박해받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서구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에도 전율을 느낀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엄청난 싸움을 생각하지 않거나 자신의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것만을 기억하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조용해서 쉴 만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머물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공산주의는 어느 곳에든지 관여하기 위하여 문앞에 대기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티벳 지방을 침략했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은 현실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장내었다. 교회와 수도원들은 모두 해체되었고 단지 외국인들에게 눈가림할 만큼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를 갈망했던 것도 역시 내 영혼에게는 위협스러운 것이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협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만일 내가 사라져 버렸을 경우 여러분은 내가 공산당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공산당들은 1948년 나를 거리에서 납치해서는 허위 명분으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아나 파커가 스웨덴 대사인 패트릭 폰 누터스와드경에게 “오! 범브란트씨는 지금 코펜하겐 거리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웨덴 대사는 내가 감옥에서 몰래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태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만약 내가 살해된다면 살인범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 외에 나를 죽일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비윤리적인 타락성과 절도 행위, 동성 연애, 불륜 관계,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이나 기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게 되면 그것은 “우리는 당신을 도덕적으로 파멸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했던 비밀 경찰의 짓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루마니아 공산당은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내가 증언한 이후에 나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했다 한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며, 내 명예를 손상시켜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힘쓸 것이다. 그들은 막강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의무는 내가 말한 것의 진위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

이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과 피해 망상으로 고통당한다는 것을 모두 들은 후에,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의 힘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시민들이 그러한 피해 망상으로 인해 고통받도록 만든다. 어린이를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동독에서 넘어오도록 하고, 전가족이 사살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철조망을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힘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유 세계의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속죄양과 사람을 찾는다. 그런 것들을 찾은 사람은 무거운 짐을 덜어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있는 서구 세계의 몇몇 지도자들에게 그 죄를 전가할 수는 없다. 그 죄악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도자들은 지난날의 죄과에 대한 희생물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혼란을 조성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런 혼란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서구 세계에 온 다음부터 나는 많은 신학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종의 기원과 찬송가의 역사, 오래 전에 폐지되었던 교회의 법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 재판소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나는 성서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아담이란 사람, 노아 시대의 홍수, 모세의 기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배우는 신학생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 예언들은 그 일이 성취된 이후에 쓰여진 것이고, 성모 마리아의 탄생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의 뼈는 무덤 속에 그냥 남아 있고, 사도행전과 같은 복음서들은 가짜이며, 계시록은 정신 이상자가 기록한 것이라고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서가 거룩한 책이라니!

이들은 공산당 신문보다도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 그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런 이상한 사실들을 떠들어 대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께 하듯이 충성해야 한단 말인가? 왜 교회 지도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제멋대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 충성해야만 하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교회 지도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주인을 배신한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들이 지하교회의 순교자나 고통당하는 교회의 교인을 만나면 이상한 사람처럼 대할 것이 아닌가?

사람의 태도에서 단지 한 면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나쁘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사실은 그들의 눈을 아주 멀게 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숭고한 일, 심지어는 그들 앞에서 행하신 일까지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공산주의에 대해 그릇된 태도를 갖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 측면에서는 일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면으로 볼 때는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해도 변화의 여지는 있는 셈이다.

나는 한때 루마니아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와 함께 있던 적이 있는데, 그는 양떼를 배신하고 공산당원이 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었다. 저녁 4시쯤에 그의 정원에서 있었던 일인것 같다.

“돌아온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를 회개한다면 주교님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찬송가를 불러 주었다. 그 사람은 금새 변화되었다.

곧 석방해 주겠다는 말에 무신론적인 연설문을 썼던 그리스 정교회 신부와 한 감옥에 있는 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석방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썼던 그런 무신론적인 연설문을 찢어 버리라고 권고했다. 나는 누구도 속죄양으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런 방법으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짐을 덜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느꼈던 또 하나의 고통은, 절친한 친구들조차도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공산당에 대해 증오와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모자이크 작가인 ‘클라우드 몬테피오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예수님의 태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사도 바울 학교의 학장직을 사임한 W.R. 마태 박사는 이것은 모순된 생각이며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예수님은 지식인이 아니었다는 궤변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몬테피오르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공개 석상에서 바래새인들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나도 비록 비난하고는 있지만, 공산당과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의 내통자도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계속적으로 나는 “공산당은 잊어버리고 영적인 일만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번은 나치 시대에 고통을 겪었던 한 기독교인을 만났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내 편에서 주겠지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말은 단 한번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독일에서 히틀러에 반대해서 투쟁했던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나 히틀러는 6백만의 유태인을 죽였습니다. 기독교인은 그에 대항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다시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3천만이나 되는 소련인을 죽였고 백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도 죽였습니다. 유태인들이 살해당했을 때만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까? 소련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저항해서는 안 됩니까?”

그는 “그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라고 얼버무리며 그 이상의 아무런 설명을 못했다.

나는 히틀러 시대에 경찰에 의해서 매질당했으며 공산주의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질당했는데, 나는 이들에게서 서로 다른 점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둘 다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죄악에 대해서도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런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며 가장 위험스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꾀망하는 것이 공산당의 주된 목적이다. 그들은 원래 반종교적이다.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 소금과 기타 다른 광물질이 될 뿐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생애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단지 집단만을 알고 있다. 그 말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탄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우리는 군대이다”라고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이러한 개성이 산산 조각이 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알프레드 애들러가 지은 『개인의 정신분석학』이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감금시켰다. 비밀 경찰 장교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개인? 개인이라니! 왜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들이 개개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타협할 가능성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과학지이면서 종교성이 짙은 잡지인 『나우카이 펠리시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종교는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공산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은 종교에 대해서 계속 몰아치는 사멸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한 강령은 무신론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

“공산주의는 종교의 죽음을 부른다.”

## 제 5 장

### 복음의 사역

이제 지하교회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지하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무신론주의가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종교가 된다. 그들은 늙은이들에게는 다소간의 신앙의 자유를 주지만 어린이들이나 젊은 청소년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TV, 라디오, 영화관, 극장, 잡지사 및 출판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을 짓밟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하교회는 전체주의 국가의 거대한 힘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나약하다. 소련에 있는 지하교회는 신학 교육이라고는 받아 본 적이 없다.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목사님은 거의



없다.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직을 제대로 임명받은 성직자들이 과연 몇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비밀리에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서 그 젊은이에게 성직 임명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었다. 그는

“우리에게 성직 임명을 해줄 만한 참된 주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교는 공산당이 승인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직 임명을 해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10여 명은 순교자로 죽은 어떤 주교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그들의 손을 그의 묘비 밑에 넣고 나머지는 묘비 주위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우리들은 성직자로 임명해 줄 것을 기도드렸고, 우리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손길에 의해서 임명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젊은이들의 성직 임명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학적인 훈련이라고는 받은 적이 없으며, 성경 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런 식의 성직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1세기경의 교회와 흡사한 상황이다. 예수님 편에서 있던 사람들이 신학 교육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읽는 법이라도 제대로 알았던가? 그들이 갖고 있을 만한 성경책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이야기하셨던 것이다.

지하교회의 우리에게도 성전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숲속과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어

디에 있을까?

오르간 대신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우리의 코를 찌른다. 그리고 감옥에서 최근에 석방된 순교자의 낡은 옷은 사제복보다도 훨씬 인상적이다.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우리의 시중꾼은 천사들이었다. 내가 교회의 이런 아름다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독교인들은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값진 보석을 받아서 장식하듯이 기쁨으로 쇠사슬을 받았다.

감옥 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여전하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맞춤과 포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왕의 자리와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하교회나 감옥 안에서도 참된 기쁨에 넘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발견했다.

지하교회는 박해받고 있지만 친구들도 많이 있다. 그들 가운데는 비밀 경찰도 있고, 정보 요원도 있으며, 비밀리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 소련 일간 신문들은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비신앙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련 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공산 정부의 관리로 일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공산당원인 체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비밀리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의 일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한다.

공산당 잡지는 공산당 선전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부인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그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그녀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이들 부부는 다른 아파트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도 갖는다.

이런 일들이 공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십만 명의 신도들이 모든 공산 국가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감시를 당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서 쏟아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권위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조용히,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지하에 있는 충성스러운 교회에 있어서 그런 위치에 있는 교인은 수천 명이나 된다. 그들은 지하 실, 다락방,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서 비밀리에 집회를 갖고 있다.

소련에서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쟁, 교황무오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천년왕국 시대 전·후에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예언서를 통역할 수도 없으며 그것에 관해서는 논쟁을 벌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신론자에게 어찌면 그렇게도 잘 증거하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놀랄 정도이다.

무신론자들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간단하다.

“만일 당신이 갖가지 맛있는 고기가 차려진 잔치집에 초대 받았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연회장입니다. 당신은 토마토나 복숭아, 사과, 우유, 벌꿀을 먹습니다. 자연은 맹목적입니다. 만일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면 앞을 보지도 못하는 자연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풍성하고도 다양한 것을 계속 준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영생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떤 무신론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태아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당신이 그 어린애에게, 태내에 있는 생활이란 이후에 계속될 긴 삶에 비하면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태아는 무엇 이라고 대답할까요? 아기는 우리가 당신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과 같은 무신론자들이 대답한 것과 똑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태아는 어머니 태내에서의 삶이 유일한 것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종교와 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태아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혼자서 이렇게 증얼거리겠죠.

‘내 팔이 이렇게 몸에 붙어 있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이곳은 좁아서 팔을 뻗을 수조차 없다. 그런데 왜 팔은 자라는가? 어쩌면 훗날 이 팔로 일을 하게 될 거야. 다리가 자라고 있지만 나는 그 다리를 가슴쪽으로 굽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내 다리는 자라고 있는가? 드넓은 세상이 오면 거기에서 걷게 되겠지? 나는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필요치도 않은 눈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왜 눈이 붙어 있을까? 아마도 빛과 색깔이 찬란한 세상이 오겠지?’

그래서 태아가 자신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바깥 세계를 보지 않고도 어머니의 자궁 바깥에 있는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젊은 동안은 생

장력이 있으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정신력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자라나지만, 이미 영구차는 우리를 무덤에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지식과 지혜가 자라는 것이 왜 필요하죠? 왜 태아에게 필요가 없는 팔, 다리, 눈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세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이 땅에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후 세계의 고차원적인 세계에서 사용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인물에 대한 공산당의 공식적인 주장은 “예수는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하교회 내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서 쉽게 답변한다.

“당신 주머니에 있는 게 무슨 신문이죠? 그것은 오늘이나 어제의 프라우다일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오! 1964년 1월 14일자 신문이로군요. 그런데 1964년이란 언제부터 계산된 수치일까요? 존재한 적이 없고 이렇다 할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은 주님이 탄생한 때를 기점으로 햇수를 계산하고 있군요. 시간이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고 그때부터 참된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당신이 갖고 있는 공산당 신문 자체가 예수님이 가공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유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 확신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당신은 우리의 신앙의 진리를 입증하는 설교를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철의 장막 뒤에서는, 설교하는 것을 배운 적은 없지만 변화된 사람에게 진지한 확신을 준다.

지하교회가 어디 있으며 기독교의 중요한 근거지가 어디인지, 교회의 끝과 시작을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이란 없다. 그것들은 이리 저리 뒤섞여 있다.

공식적인 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공산당이 그들을 제한하는 것 이상으로 비밀 목회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

공산당과 협력체제를 갖고 있는 공식적인 교회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소련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세르기우스’ 신부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교회”와 함께 바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살아있는 교회”는 이 시대에 모스크바에서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말살되도록 교회를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세르기우스 같은 사람이 있다.

카톨릭 신도가 있는 헝가리에서는 “발로흐”라는 교부가 있다. 그와 개신교 목사들은 공산당이 그 국가를 완전히 통제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루마니아에서는 “버두시아”라는 정교회 신부의 도움으로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는 전에는 파시스트였으며, 그의 상관보다 먼저 소련 공산당이 됨으로써 그의 지난 죄는 자연스레 묻혀 버렸다. 이 신부는 소련 당서기인 비신스키 옆에서 그가

새로운 공산 정부의 취임 인사를 했을 때 승인하는 듯한 태도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정부가 지상낙원을 건설할 것이며, 여러분은 하늘에 있다는 천국 같은 것은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의 ‘니코딴’ 대주교에 관해서는, 그가 정부의 내통자였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런데 소련 비밀 경찰에서 도망나온 ‘데리아 빈’ 소령이 니코딴이 그들의 앞잡이었다는 것을 증언했다. 이 같은 일은 거의 모든 교파에서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루마니아 주교의 현직 지휘권은 권력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 그 지휘력은 진실된 기독교인들을 비난한다. 소련에 있어서 주교들의 지도력도 마찬가지이다.

루마니아의 그리스도 재림론자들의 집회 의장인 타치시는 나에게 자신이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하려 왔던 첫날부터 공산당 비밀 경찰의 내통자였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수천 개의 교회를 폐쇄시키면서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킨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은 약삭빠르게 허울만 뒤집어쓴 공식적인 교회를 허락해 주고는, 그것들을 창문삼아서 기독교인들을 관찰하고, 통제하고, 결국에는 기독교인과 기독교 자체 까지도 없애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들은 교회 건물을 남겨둔 채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통제 도구로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방문객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두었다.

나에게도 목사로서 비밀 경찰에게 내 동료들을 밀고하겠다는 조건하에 그런 교회가 하나 제외되었다. 단순한 흑백 논리에 젖어 있는 서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의미있고 효율적인 복음주의를 위한 대체물로서의 이름뿐이며 통제받고 있는 교회가 되게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회 내에서도 배신하는 지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된 영적인 삶이 영위되고 있기도 하다. 나는 이것이 서구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가끔은 충실하지 못하다.

그리스 정교회 예배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설교 내용이 공산당에게 아첨하는 것일지라도 그 기도와 설교는 이 교회 교인의 영혼을 양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루터파 교회와 장로교회, 기타 모든 개신교들이 다 같이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또한 밀고자의 설교 내용조차도 성경적인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가 이전에 배반자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변화된 사람들을 비밀 경찰에 고발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타락한 설교자에 의해 믿음을 부여받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숨겨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사들의 영향을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커다란 기적이다.

성경의 레위기는 11장 37절에 상징적인 어조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그것과 접촉하는 것들이 부정하게 되겠지만, 심을 씨앗에 떨어질 때에는 그것이 부정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 상층 지도자들은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 교회 요원들은 그들의 신분을 감추어야만 하는 몇 사람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교회 안에서도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투쟁하는 신앙이라고 보고 있다.

비밀 경찰이 루마니아에 있는 ‘블라디미레시티 수도원’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 소련에서와 똑같이 그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몇몇 공산당원들은 종교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데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있다.

교회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나는 아직도 소련 지역에 5, 6천 개의 교회가 있는지 궁금하다(같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에는 30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들 교회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단지 협소한 방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들은 모스크바에서 초만원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유일한 개신교 교회이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곳에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회가 남아 있다고 기쁨에 넘쳐서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7백만 영혼을 위한 교회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비극을 살피지 못한다. 소련 국민들의 80%가 여행하는 지역 이내에는 방 한 칸의 교회조차 없으며, 이 대중들은 잊혀지거나 지하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셈이다.

한 나라 안에서 공산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잠입하게 될 것이며, 폐쇄된 공식적인 교회 대

신에 비공식적인 단체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지하교회는 어떻게 무신론적인 문서들을 양식으로 삼고 있나?

그러나 지하교회는 이것들을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하교회는 마치 엘리야가 까마귀에 의해 먹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무신론적인 문서들을 먹이로 삼는다.

무신론자들은 성경 구절을 비웃고 비난하는 데 상당한 기술과 열정을 쏟고 있다. 그들은 “불합리한 성경”과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위한 성경”이라 불리는 책들을 펴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비평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그 책은 수백만 부가 만들어졌고 그 내용은 성경 구절로 가득 채워졌다.

악마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조차도 성경 구절만큼은 사실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공산당 출판사는 그들을 비웃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 무신론적인 책들을 재출판하도록 요청하는 수천 통의 편지를 받고는 기뻐했다. 공산당은 이 편지들이 지하교회에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하교회는 성경을 얻을 만한 다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했다.

우리는 또한 무신론자들의 모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교수가 한 모임에서, 예수는 단지 마술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교수 앞에는 물 한 주전자가 있었다. 그는 거기에다가 가루를 넣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전부입니다. 예수는 이와 같이 옷소매에다 가루를 숨겼다가 훌륭한 방법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가루를 그 액체 속에 부었다. 그러자 그것은 곧 뿌영게 되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가루를 넣자 그것은 또 다시 붉게 되었다. 그러자 한 기독교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수 동지! 참으로 당신은 대단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만든 그 포도주를 조금만 마셔 보시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루는 독약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대답하기를

“이것이 당신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만드신 포도주로 2,000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 있는 반면에 당신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독을 줍니다”라고 하였다.

그 기독교인은 감옥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 사건에 얽힌 소식은 멀리 퍼져나갔고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이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신론자인 콜리앗보다 더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진리는 우리에게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

한 공산당 연사가 무신론주의 연설을 하고 있었다. 공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그 강연장에 참석하도록 명령받았고, 이들 노동자들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어리석음과 하나님께 반대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그 연사가 영적 세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물질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단계가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물질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한 기독교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질문을 하도록 허락 받은 다음, 그는 접혀진 의자를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쳐 버렸고, 그는 그것을 보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그는 걸어나가서 공산당 연사의 얼굴을 “찰싹” 갈겨 주었다. 그 연사는 매우 화가 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 올랐다. 그는 욕설을 퍼붓더니 동료 공산당원에게 그 기독교인을 체포하도록 명령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감히 내 얼굴을 쳤습니까?”

그 기독교인은 대답하였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은 물질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의자를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쳤는데 그것은 정말 물질이더군요. 그 의자는 아무런 화도, 반응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지 물질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 뺨을 갈겼을 때 당신은 그 의자와는 달리 반응을 하더군요. 당신은 전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물질이란 미치거나 화를 내지 않는데 당신은 화를 냈습니다. 교수 동지! 결론

적으로 당신이 연설한 그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하 교회와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자가 애써서 만든 무신론적인 논쟁을 반박했다.

감옥에서 행정관이 내게 격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어리석은 종교를 언제까지 고수할 생각이죠?”

“나는 많은 무신론자들이 임종시에 자신들이 무신론자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한 명의 기독교인이라도 마르크스와 레닌을 칭하여서 그의 믿음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소리내어서 웃기 시작하더니

“상당히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군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어떤 공학도가 다리 하나를 건설했을 때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갔다는 사실로 그 다리가 견고하다고 입증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기차 한대는 지나갈 수 있어야 그것을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갈 때 당신이 무신론자일 수 있다는 사실로는 무신론주의가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큰 위기가 닥친 순간에는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레닌의 책을 인용했다. 레닌이 소비에트 연방의 총통이 된 이후에도 일이 잘못될 때 레닌 자신도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잠잠했고 그 사건이 진전되기를 기다릴 수 있었다. 불안해서 새로운 종교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불안하다”라는 말이 입증된 셈이다.

##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면 공산당의 마음을 이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세계의 모습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된다는 것 그 자체는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개들조차 혼자서 먹을 뼈다귀를 원하고 있다. 공산당원의 심령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칙과 그들이 무조건 믿어야 하는 불합리성에 반감을 갖고 있다.

개개인의 공산당원들은 물질이 전부이며(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이며), 우리는 어떤 형태를 갖춘 한줌의 화학 물질로 조직되어 있어서 죽은 후에 또 다시 소금이라든가 그 밖의 광물질 등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사실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공산국가에 있는 공산당원이 그들의 이념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가? 한줌의 화학성 물질도 이념을 갖는가? 소위 광물질이란 것들이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무너진 나치 위정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후회하는 반면에

몇몇은 자살을 했다.

공산주의 국가내에서 술주정뱅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도 어떤 결정적인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도 좀더 자유로운 삶을 바라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 대부분의 소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고력이 깊고 마음이 관대한 편이며 온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다. 사람들은 심오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술을 통해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살아야만 하는 짐승같고, 기만당하는 삶에 관한 공포를 술로 표현하고 있다. 술이란 것은 잠시 동안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알 수만 있다면, 진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다.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부카레스트에서였다. 나는 아내와 함께 한 음식점에 가게 되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손에 권총을 들고 모든 사람을 위협하면서 마실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소련군 장교를 봤다. 그는 이미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를 내 보내야만 했다.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나는 전부터 알고 있던 주인에게 가서, 장교와 함께 앉아서 그를 진정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장교에게 술을 더 주도록 부탁했다. 술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다. 탁자 위에는 잔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장교는 항상 공손하여 잔 세 개를 가득 채웠으며 그리고 나서는 세 잔을 모두 마시곤 했다. 아내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술에 만취되어 있었으나 그래도 의식은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예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는 신중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군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오! 나는 스탈린이 집권할 당시 큰 박해가 시작될 때 처음의 내 신앙을 부인한 그리스 정교회 신부입니다. 나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신은 없으며 신부로서 나는 기만자였다는 이야기를 했죠. ‘나는 기만자이며 다른 모든 목사들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내 열심 때문에 많은 찬사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비밀 경찰 장교가 되었습시다. 그런 내게 신께서 내리신 벌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한 후에 이 손으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행한 일들을 잊기 위해 자꾸만 술을 퍼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날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공산주의자가 자살을 한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시인인 ‘에세닌’과 ‘마이아코프스키’도 자살했다.

유명한 작가인 ‘파디프’ 역시 자살했다. 그는 『행복』이란 소설을 막 완성했는데 거기서 그는, 행복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노동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을 하는 동안 매우 행복했다고 적고 있다. 그런 그가 그의 소설을 완성한 이후에 자살했다. 그의 영혼이 그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에 겨웠던 것이다.

짜르 시대에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자이며 위대한 공산당 지도자였던 ‘조우프’와 ‘툼킨’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 역시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공산당은 불행하다. 그들의 위대한 독재자 스탈린 역시 마참



가지이다. 그의 옛 동료들 거의 모두를 죽이고 난 이후에 그는 독살되거나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는 은행 안에 있는 금고처럼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침대를 8개나 갖고 있었다. 밤에 그가 어느 침대에서 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요리사가 그의 앞에서 음식물을 먼저 먹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먹지 않았다.

공산주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공산주의를 타도함으로써 우리는 희생자뿐 아니라 공산주의자까지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지하교회는 노예화된 우리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요구들을 나타내 준다.

지하교회를 도와주세요!

지하교회의 뚜렷한 특징은 신앙 면에서의 열성이다. “조지”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 목사가 하나님의 지하교회에 관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떤 소련 육군 장교가 헝가리에 있는 목사를 찾아와서는 혼자서 그를 만나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청년은 매우 젊고 성미가 급했으며, 정복자로서의 당당함이 역력했다. 목사는 그를 조그만 회의실로 인도해 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는 벽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저것(십자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것은 당신과 같은 목사들과 부자들이 빈자(貧者)들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입니다. 자, 이리 와 보세요. 여기엔 우리만 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을 믿은 적이 없죠!’

그 목사는 빙그레 웃더니 말했다.

‘불쌍한 젊은이여, 물론 나는 믿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까지 기만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나를 우롱하지 마시오!’

그 장교가 소리쳤고 권총을 꺼내더니 목사에게 들이대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썩버릴 겁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계셨던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말했다.

그 장교는 총을 마루에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껴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게 사실이죠, 맞죠? 나도 그게 사실이라고는 믿고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발견할 때까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소련 사람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했을 때 두 명의 무장 군인이 소총을 들고 한 교회로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신앙을 믿지 않고 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즉시 사살할 것이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비켜 서라!”

몇몇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섰다. 이들에게 교회를 떠나

마을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소련인들은 남은 기독교인들과 있게 되자 그들을 껴안고 말했다.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동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복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투쟁한다.

많은 자유 세계의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따로 세속적인 음악을 듣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가정에서도 화려한 음악이 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자나 지하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이 엿듣고 비밀 경찰에게 밀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음 수단이다. 그들은 좀체로 만나기 어려운 진지한 기독교인을 만날 때면 어찌나 기뻐하는지!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며, 자유 세계에서는 전혀 표현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그들의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기독교 문제를 진지하게 부탁드리며, 공산주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통당하는 지하교회를 위해 실제적인 협조와 기도가 있으시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공산당을 이길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 메시지는 가장 깊은 마음의 욕구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 갇던 공산당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나는 공산당 장교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모든 문화적 유산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는 현대 기독교 저작물 모두를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책들이 아직 산재해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다. 동독에서는 괴테의 책 속에서, 폴란드에서는 생 케비츠에게서, 루마니아에서는 유명한 작가인 사도바누에서 말이다. 공산당은 『성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그의 책을 출간했다.

그러나 이런 제목으로도 성자들 삶의 본보기는 많은 영감을 주었다. 공산당이 미술사에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들의 그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해주고 있다.

내가 한 공산당원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심오한 정신적인 욕구들은 나와 동일한 것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나의 협조자이기도 했다. 그와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내 논쟁에 대해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에 젖어 있는 교수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에게 무신론적인 문학을 공격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실지도 모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니!

나는 공산당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밀 집회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발각되면 지하교회 모임에는 간 적이 없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비밀 집회에 참석하도록 충동질했던 신앙을 버릴 만한 용기를 갖지 못

한 사실을 후회하면서 울었다. 그들 역시 나약한 인간이다. 그들이 일단 가장 기초적인 신앙에라도 접하기만 하면 이 신앙은 발전하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지하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승리하는 신앙을 보아 왔기 때문에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공산당원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족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속 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교회를 지지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철의 장막 앞에서만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위대한 명령은 공산주의 아래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세 사람당 한 사람에게 비밀 장막을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미 공산 세계에 잠입해 있는 지하교회와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 지하교회는 세 개의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 1. 첫번째 집단은 공산당에게 해고당한 성직자와 목사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하교회는 세 개의 집단으로 조직되어 있다.

첫번째 집단은 복음을 전하면서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양떼로부터 격리되고 교회에서 내쫓겨진 수천 명의 목사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많은 목사들은 수 년 동안 간혀서 그들의 신앙 때문에 고문받기도 했다.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신속하게 다시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효과적인 목회를 시작했다. 공산당원들이 그들의 교회를 폐쇄시키거나 그들 대신 좀더 믿을 만한 목사들로 대체시키면 그들은 헛간, 다락, 지하실, 밤에는 건초장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일 만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여서 더욱 효과적인 목회를 계속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다시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들의 목회를 중단하지 않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다.

## 2. 둘째 부류는 평신도 집단이다.

지하교회의 두번째 부류는 헌신적인 남녀 평신도의 막대한 조직이다. 그 조직체에는 유명한 사람도 없으며, 소련이나 중국에는 반신 반의하며 우유 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도 크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박해는 항상 더 훌륭한 기독교인, 즉 간증하는 기독교인, 영혼이 승리한 기독교인을 배출해 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공산당의 박해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자유 세계에서도 좀체로 보기 드문 심오하고 헌신적인 기독교인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 자유 세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승리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듯하다.

『붉은 별』(소련 군용 신문)은 “그리스도 숭배자들은 탐욕스러운 발톱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한다”고 적으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빛된 삶은 이웃 마을과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그들을 이기고 있다. 어떤 마을이나 도시에서든지 기독교인들은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일부러 와서 그의 자녀를 돌보아 주는 것은 기독교인 어머니들이다. 남자 어른이 너무 아파서 땀감을 지를 수 없을 때 그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도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시작하면 그곳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믿어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열렬하고도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즉 시장이나 마을 우물가가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인도했다. 공산당 신문들은 기독교인의 푸주간에서 그들이 고기를 종이로 말아 쌀 때에 기독교 책자를 슬그머니 밀어넣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공산당 신문은 공산당 인쇄소의 권력층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밤늦게 살그머니 들어와서 기독교의 성경을 인쇄하고 동이 터오기 전에 다시 잠그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산당 정기 간행물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기독교 어린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복음을 받아서 손으로 다시 베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이들은 학교 벽장에 걸려 있는 선생님의 코트 속에 그것을 넣어 둔다.

평신도들의 광범한 조직은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조직은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기도 한다.

쿠바에서는 진실한 목사님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박해당하여

공산당의 어용 목사들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평신도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평신도 교회 내에 있는 헌신적이고 진실하며 열렬한 수백만 명의 신도들은 공산당이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마련한 박해의 불길에 의해 더욱 순수해지고 있다.

### 3. 세번째 부류는 구속당하지 않고 잠잠한 공식적인 목사들이다.

지하교회에서 세번째로 중요한 부류는, 공식적으로 신앙이 있는 목사들로 이루어진 커다란 조직체이면서 압박당하고 침묵하는 교회이다.

지하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에, 지하교회에서 비밀리에 전도 사업을 펴고 있는 공식적인 목사들이 있다.

어떤 나라에는 지하교회와 공식적인 교회가 서로 뒤섞여 있다. 이 목사들은 교회(작은 방 하나로 된) 바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모임이나 젊은이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비기독교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목사들은 그들의 가정에서 병든 교회 신도들을 위해 기도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교회를 의미 없이 만드는 공산당 규정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들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웃음거리로 삼는 규정과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되는데, 공산당의 제한을 넘어서 비밀 모회를 병행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위해 용기 있게 모험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비밀리에 모회를 한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가정이나 지하실에서 비밀리에 전도하며, 비밀



리에 기독교 서적을 받아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다시 분배한다. 그들은 주위에 모여드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목회를 하고 공식적인 규제들을 비밀리에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위해 모험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순종하는 듯하면서 비밀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적발되어 체포되고 있다. 그들은 몇 년 동안의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지하교회에서 중요한 세번째 집단은 이들이다. 공산당에 의해 내몰리고 박해를 당했던 목사들과, 평신도 교회와, 그들에게 허용된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비밀 목회를 하고 있는 공식적인 목사들, 이들 모두는 지하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교회는 공산주의가 퇴치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를 빈번하게 여행하면서 종교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전혀 지하교회를 보지 못했노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마치 교육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 중앙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나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물어보았다, 그들이 산문을 말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물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내게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는 말하고 있는 것이 산문이란 것을 알지 못한 채 산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들은 유대인이며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를 메시아로, 동포로서, 성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기독교인”이란 이름은 훨씬 후에 다른 사람에 의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루터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지하교회”란 공산당에 의해 주어진 이름이다. 동구에서의 종교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서방의 연구자가 모든 공산국가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비밀 단체에 붙인 이름이다.

지하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런 이름으로 그들의 조직체를 부르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며 “신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지하 사업을 지도한다. 지하에서 만나 비밀 모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가끔 지하교회에서 본 적이 있고, 시험에 합격한 이방인도 참석한다. 적당한 이름이 적에 의해서, 그리고 훌륭한 비밀 모임을 사랑스럽게 바라본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졌다.

여러분이 서방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소련 스파이 조직망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스파이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호기심에 가득 찬 여행객들에게 보일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뿐이다.

다음 장에는 이러한 용기 있는 지하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존재를 인정해 주는 소련 출판물들에서 몇몇 실례를 인용하고자 한다.

## 제 6 장

### 지하교회

나는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련 군대에서 비밀리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한 우리의 경험을 전해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공산당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공산당에 의해 억압받는 국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나의 도전이 가공적이며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그 일은 실제적일까? 지하교회가 지금도 소련과 기타 다른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곳에서 지하 선교를 하는 일이 여전히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공산당은, 공산당이 통치를 하기 시작한 지 50여 년간은 찬양받아 왔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하나의 패배이다. 공산주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승리했다. 우리의 조직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소련의 주간지는 지하교회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지하교회는 상당히 강해져서 반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산당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자료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공산당 출판소의 보고서는 확실하다고 한다.

지하교회란 빙산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빙산은 거의 대부분이 수면 아래 잠겨 있으며 극히 일부만이 물위에 떠오르는 것이다. 다음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짧게나마 요약하고자 한다.

## 빙산의 일각

1966년 11월 7일 코카서스에 있는 지하교회는 공개리에 큰 회합을 열었다. 많은 신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다른 도시에서 왔다. 소명을 받은 이후에 47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광야 시대처럼 흑해가 있는 지점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 전에 교육을 받은 기간이라고는 없었다. 공산주의 독재가 시작된 지 50년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책과 다른 기독교 서적이라곤 없었으며, 세미나도 없어서, 지하교회 목사들은 어떤 신학적인 교육을 받아 본 적도 없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빌립과 약 1시간

쫘 이야기했던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라고 하였다.

이에 빌립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즉시 물가로 내려갔고, 개종자는 세례를 받았다(사도행전 8:36-38).

흑해에는 물이 충분했으며 지하교회는 성경 시대의 예배 의식을 다시 시작했다.

1966년 8월 23일자 『우치텔스카이아 가제타』(교사들의 잡지)지는 로스토프 폰 돈에서 공산당에 의해 위임받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과 법에 따라 그들 집회에 등록하기를 거절한 침례교회 신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그날이 5월 1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시한 채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하교회 역시 공산당의 규칙을 무시한 채 공산당 축제일을 선택했다. 5월 1일은 공산당이 항상 시가 행렬을 벌이는 축제일이며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소련에서는 두번째로 커다란 힘인 지하교회가 시가행렬에 나섰던 것이다.

1,500명 정도의 신도들이 모였고, 그들을 그곳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들은 자유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감옥에서는 굶주림과 고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소련 내의 모든 신도들은 바나울에 있는 복음주의 교인들에 의해 인쇄된 “비밀선언문”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는 쿨룬다 마을에 있는 “마라”라는 자매가 남편이 감옥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적혀 있었다. 이제

그녀는 4명의 어린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되었다. 그녀가 남편의 시체를 받았을 때 그녀는 남편의 손목에서 수갑 자국과, 손가락, 발가락까지 가혹하리만큼 태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복부에는 칼자국이 나 있었고, 오른쪽 발은 절단되어 있었다. 양쪽 발에는 매질당한 흔적이 있었고, 전신은 가혹한 매질로 생긴 상처투성이였다.

로스토프 폰 돈에 있는 공개 시위에 참석했던 모든 신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틀림없이 자신의 운명이 될 줄 알면서도 여전히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변화된 지 단 3개월 후에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이 순교자가 많은 교인이 플래카드 비문을 들고 서 있는 앞에서 장사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죽겠노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었던 사람들을 보았다.”

이 순교자의 본보기는 로스토프 폰 돈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그들은 작은 집을 둘러싸면서 거리로 몰려들었다. 몇몇 사람은 지붕 위에도 있었고, 나이 많은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무리들은 나무 위에도 있었다. 집 주위 어느 곳이나 사람들로 가득 찼다.

80명이 변화받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젊은이였다. 이 80명 가운데 23명은 전에 공산청년동맹의 단원이었다.

신도들은 도보로 전 시가지를 가로질러서 돈 강가로 왔으며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공산 비밀 경찰을 태운 자동차가 도착하여 강 독에 있는 신도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책임자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기다렸다(그들은 1,500명이나 되는 신도 모두를 체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 즉시, 신도들은 무릎을 꿇고는 국민을 보호해 줄 것과 그날의 예배가 허락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다. 또한 그 곳에 있던 형제 자매들은 어깨를 서로 나란히 기댄 채, 비밀 경찰이 그들의 대표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형제들을 둘러쌌다.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다.

『우치텔스카야 가제타』지는 로스토프에서 비합법적인 침례교 단체가 지하 출판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소련에서 “침례교”란 말은 복음주의와 성령강림절기란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 출판물은 신앙을 지키도록 소명받은 젊은이들에 의해서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 출판물을 통해서 기독교인 부모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받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순간적인 것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장례식에 참석시켜라.”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산주의 학교에서 무신론에 감염되는 데 대한 해독제로서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치텔스카야 가제타』지는 다음과 같이 질문함으로써 글을 맺는다.

“어째서 교사들이 소심하여 가정에서 종교로 인해 아이들이 백치가 되도록 혼란을 주는가?”

이 교사 잡지는 비밀리에 세례를 베풀었던 지하교회 일꾼들

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도 묘사하고 있다.

“젊은 신도들은 신앙 증거자들이 법정에서도 당당해야 하며 법정을 노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화를 내면서 광적인 행동을 했고, 젊은 부인들은 방청석에서 피고를 감탄어린 눈으로 주시했으며, 무신론자에게는 반대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하교회 성원들은 소련에 있는 공산당 본부 정문 앞에서 좀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 매맞고 투옥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통제하고 있는 침례교 연합회에 반대되는 소련 연방 복음주의 교회위원회가 작성한 불법적인 비밀 문서를 갖고 있다. 침례교 연합회는 반역자 카레프가 지도하는 것인데, 그는 기독교인을 대량 학살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하고 『오늘의 소련 생활』이란 잡지에 기고하는 자였다. 그 문서는 비밀 경로를 통해 서구 세계에 유출되었다. 그 문서는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 자체 내에서도 또 다른 영웅적인 대중 시위가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이 선언문 몇 부분을 옮겨 본다.

## 긴급 통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1966년 5월 16일에 모스크바에 여행했던 500명



가량의 복음침례교 대표들이 사회주의 소련 공화국 공산당 위원회 건물 앞에 가서 그들의 요구를 수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브레즈네프에게 항의문이 적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성명서에서는 덧붙여 말하기를, 이들 500명이 하루 종일 건물 앞에서 서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지하교회 대표들이 행한 처음 있는 공개적인 시위였다.

또한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은 두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들은 “스트로가노프”라는 어떤 동무가 그들의 탄원서를 브레즈네프에게 제출하지 않고 그들을 위협했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500여 명의 대표들은 거리에서 밤새껏 계속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자동차 때문에 온 몸에 먼지와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모욕을 당했다. 비가 내리고 위협을 당해도 그들은 공산당사 정문에서 아침 나절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

다음 날,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몇몇 하급 관리라도 만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당국자들을 만나러 이곳을 방문했던 신도들이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그런 건물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목격 진술도 하지 못하고 매만 맞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대표들은 만장 일치로 그 제안을 거부하고 브레즈네프가 수락하기만을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오후 1시 45분쯤, 28대의 버스가 밀어닥치더니 신도들에 대한 짐승같이 악랄한 복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손을 손을 잡고 원을 만들고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불렀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날은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날일세.”

경찰들은 아우성치는 사람들 속에서 몇 명을 끄집어내더니 얼굴이며 머리를 가릴 것 없이 구타하고 그들을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쳐 버렸다. 그들은 또 몇몇 형제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버스 속으로 들어갔다. 몇몇은 도망치려다 심하게 맞고 의식을 잃었다. 그들은 버스에 신도들을 가득 채우더니 낯선 곳으로 데려가 버렸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노래 소리가 비밀 경찰들의 버스 속에서 흘러나왔고, 이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자, 이제는 좀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 보자. 500명이 체포되어서 상당한 고문을 당한 이후에 G·빈즈 형제와 또 다른 지도자인 호레프는 계속 공산당 중앙 위원회 건물로 가기로 하였다. 마치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빈즈와 호레프는 체포당한 대표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 용기 있는 두 형제들은 금세 사라져 버렸는데, 이후에 그들이 레포르토프스카야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 지하교회 교인들은 두려워했던가?

아니다!

나머지 교인들은 즉시로 그들의 자유를 위해 또 다시 모험을 했다.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선언문을 출판하면서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들려 주기도 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

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립보서 1:29).

그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로 믿음의 형제를 권면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를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데살로니가전서 3:3).

그들은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인용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하교회는 로스토프와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전역의 젊은 이들을 무신론자로 감염시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독소와 배반한 공식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우고 있었으며, 이를 비밀 선언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시대에는 사탄이 명령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모든 결정을 수락하고 있다”(1966년 10월 4일 『프라우다 우크라이니』지에서 인용).

『프라우다 보스토카』지는 알렉세이 네페로프, 보리스 가마조프, 악센 쥬포프 형제의 재판 내용을 실었다. 그들은 미국에서 방송되는 복음 방송 청취 모임을 조직해서 그 전파되는 메시지를 테이프에 담아 전국을 순회 전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여행 단체” 혹은 “예술 단체” 등의 명칭으로 비밀 복음 모임을 조직한 혐의를 받았다. 지하교회는 초대교회가 로마의 지하 묘지에서 전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했다.

1966년 9월 15일자 『소비에트스카야 몰다비아』 일간지는, 지하교회가 등사판 소책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공공 장소에 모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장소, 저 장소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레니에서 치시나우로 가는 기차 안에서 3명의 젊은 남자와 4명의 여자가 “우리의 젊음을 주께 바치세”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그 신문 기자는 자신의 속이 메스꺼워짐을 느꼈다고 공언했는데, 이유는 이들 신앙인들이 거리에서, 역에서,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심지어는 공공 장소에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구형을 받았을 때 무릎을 조아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 하나님 손에 맡기나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지도자 중의 하나인 그레드체비치가 법정 에 불려 나왔을 때 청중들은 열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마단의 인도로 법정에 나와서 찬송을 불렀다.

5월 첫날, 콥섹과 자하루프카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없어서 비밀리에 숲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 한다. 그들은 또한 생일 잔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조직했다(평균 4, 5명의 기독교인 가족들이 비밀 집회를 위장하기 위해 한 해에 35명의 생일 잔치를 연다).

어떤 감옥 생활과 고난도 지하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할 수는 없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는 단지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게 해줄 뿐이었다.

1966년 10월 4일자 신문 『프라우다 우크라이니』지는 소련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프로코피에프 형제에 관해서, 그는 이미 3차례나 감옥에 간 적이 있으며 석방되자마

자 또 다시 비밀리에 주일학교를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체포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는 비밀 선언문에서 “인간이 만든 규정(이것은 그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법을 의미한다)에 복종함으로써 공식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유 세계의 여러분은 소련인 형제가 선고받았다는 보도를 들을 때, 보통 감옥살이일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있는 감옥은 굶주림과 세뇌 교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66년 9월 9일자 과학 및 종교에 관한 잡지인 『나쿠아 이 렐리아』에서는 기독교 신도들이 『룩 오어 타임』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오고노』의 걸장 안쪽에다 복음서를 넣어서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걸표지에는 톨스토이의 작품인 『안나 카레리나』라고 적힌 책들을 나누어 준다. 안을 들쳐보면 성경 책자인 것을!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곡조는 “국제 공산당 찬가”이지만 내용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1966년 6월 30일자 『카자흐스탄스카이어 프라우다』지).

출간된 비밀 편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침례교회의 공식 지도자 정신이 세계에 있는 교회와 진실된 종들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높은 지위에 있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식으로……

그러나 충성된 지하교회는 계속 일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남편에게 하듯이 계속 주님께 충성을 다짐한다. 공산당은 지하교회가 그리스도 편에서 이길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내게 있음을 인정해 주었다. 지하교회는 승리하고 말리라!

1966년 4월 27일자 바쿠의 노동잡지인 『바킨스키 라보치』는

공산당 청년 연맹단원이면서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타니아 시규노바의 편지 한 통을 복사 게재했다. 그 편지는 공산 당국자에 압수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나디아, 당신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디아여, 그리스도는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익히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며 너희에게 악의를 갖고 이용하려 드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한때 이 편지는 압수되었고, 나디아와 많은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한 “피터 세레브레니코프”라는 형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공산당 신문들은 그의 설교 중에서 한 마디를 인용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초대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외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소련 법에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서만이 유일한 법입니다.”

잔학한 무신론자의 독재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곳에서는 당연한 답변이었다.

그런 후 공산당 신문은

“야만적인 사건을 보고는 말하기를 젊은 소년 소녀들이 영적인 찬양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적을 사랑하라는 사악하고도

배신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바킨스키 라보치』지는 공산당 청년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한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공산당 학교는 얼마나 무력한가! 빛을 잃고 얼마나 답답한가! 그래서 목사들이 무관심한 교육자들로부터 그 학교의 제자들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1966년 6월 30일자 『카자흐스탄스카이야 프라우다』지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딴 학생이 기독교인이었음을 발견하고는 놀랐다고 적고 있다.

1966년 1월 17일에 『키르기즈스카이야 프라우다』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지하교회 인쇄물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린이들이 요람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와 정성을 결의하자! ……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덜 받도록 노력해 보자.”

이 노력은 성공을 거두었다! 공산당 신문은 그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 기독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체리아빈스크에서 온 어떤 신문은 청년 공산당연맹의 “니나”라는 한 소녀가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어떤 비밀 기독교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6년 11월 9일자 『소비에트스카이야 주스티티아』지에서는 그런 지하교회의 집회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지하 모임은 한밤중에 열리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까

지도 숨겨 가면서 각기 다른 곳에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몹시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한 방안에 가득 찼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무릎조차 꿇지 못할 정도였다. 공기는 희박해서 이내 낡은 가스등이 꺼지고 말았다. 그곳에 참석한 이들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다. 바깥에서는 신도 한 사람이 비밀 경찰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니나는 그 집회에 따뜻한 사랑과 환영을 받았노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깨달음을 전해주는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당신의 보호 아래서 품어 주십니다. 나를 알고 있는 공산 청년당원들이 인사도 없이 내 걸을 그냥 지나치게 하셔도 좋습니다! 마치 내게 매질이라도 할 듯한 경멸에 찬 눈길과 예수쟁이라고 조소 편 어조로 농락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공산주의자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공산당 법정 앞에 끌려 나왔을 때조차도 지하교회 교인들의 답변은 영감적인 것이었다.

재판관이 “왜 사람들을 금지된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묻자 한 자매는 “우리의 목적은 전세계가 그리스도편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당신네들의 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로군요”라고 조소하자, 학생으로서 기소되었던 소녀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아인슈타인과 뉴턴보다 더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들은 바로 신앙인이죠, 우리의 우주가 아



인시타인을 낳은 것입니다. 아인시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언자들의 유대교와 예수가 가르쳐 준 기독교를 오늘에 와서 없애 버린다면, 특히 세속적인 권력욕을 반대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없애 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사회악에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위대한 종교를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의 신성한 의무이다.’

또한 우리의 위대한 생물학자인 파브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르크스조차도 『자본론』 서문에서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적인 형태에서 보면 죄에 의해 파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상적인 종교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내게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이 일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재판관이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과학적인 종교를 가졌다는 동일한 기소에 대하여 한 기독교인은 이렇게 답변했다.

“판사 나오리, 나는 당신이 클로로포름과 다른 의약품을 발견한 심프슨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프슨에게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내가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것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신앙을 위해 피흘릴 수 있고 자기 희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하교회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이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사로 알려진 알버트 시바이처 박사가 고통의 주(主)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고통을 가진 자들의 진정한 친구’로 불리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모두 구세주를 향한 사랑의 띠로 단합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들을 흘리치지는 못합니다.”

비밀리에 입수된 편지에서 지하교회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인,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십자가도 달게 지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며, 의심치 않고 믿으며, 지도자가 누구인지 법정에서도 말하려 들지를 않는다.

1966년 1월 15일자 『프라우다 보스토카』지는 “마리아 세브시우크”라는 피고가 그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말해 주고 있다.

그녀는 “나를 그 집회에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다.

“누가 지도자냐?”는 질문에 그녀는 “우리는 인간으로 지도자를 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누가 너희들에게 파이오니어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붉은 넥타이를 끌러 버리라고 가르쳤느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의 자유 의지로 그런 일을 했을 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곳에서 병산의 한 조각이 발견되어도, 지도자가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스스로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한다. 어떤 강에서 세례식이 베풀어질 때면, 의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알아 볼 수 없다.

1964년 1월 30일자 『우치텔스카이야 가제타』지는 볼네치노 코르스키 구역에 있는 보로닌 마을에서의 무신론 강연을 보도하고 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신앙인들이 공개적으로 질문 공세를 펴으로써 무신론 강연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무신론 연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네 공산주의자들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도덕 원칙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훔치지 말며 살인하지 말라는 말 따위는 지키지 않나요?”

교인들은 이런 도덕 원칙이 공산주의자가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에서 온 것임을 증명하였다. 덕분에 그 연사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강연은 신도들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지하교회에 대한 박해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오늘날 지하교회 교인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모든 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해의 주요 대상은 바로 지하교회이다.

소련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량 체포와 기소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떤 곳에는 82명의 기독교인이 정신병 자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며칠 후에는 24명이 “연장된 기도” 때문에 죽었다. 언제부터 긴 기도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가? 여러분은 그들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가해진 최악의 고통은, 그들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녀들은 일생 동안 부모들과 격리되고 부모를 방문할 권리조차 박탈되는 것이었다.

소련은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에 반대”하는 UN의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그 내용은 “부모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종교적, 윤리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공식적인 침례교회 연합회의 지도자인 반역자 카레프는 위의 조항을 들면서 소련에는 이러한 권리가 실존한다고 확신했는데, 열간이 같은 사람이나 그 말을 믿는다. 이제 소련 출판업소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자.

1963년 6월 4일자 『소쇼스카이스 러시아』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침례교인인 마크린코바는 6명의 자녀와 격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해 주고 자녀들에게 파이오니어의 사인이 적힌 넥타이를 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형을 선고받을 때 단지 이 한 마디만 했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 고통을 참는다.”

그녀는 자기로부터 격리된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고, 자녀들은 점차로 무신론에 감염되어 가고 있다. 그런 그녀의 고뇌를 기독교인 어머니들은 생각해 보라!

『우치텔스카이야 가제타』지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이그나티 물린과 그의 아내에게도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판사는 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그 판사는 “하나님과 당신의 딸 중에서 택일하시오. 어찌겠소?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물었고, 그 아버지는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소!”라고 대답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나 부모에게서 격리되어 공산당 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본 적이 있다. 그 아이는 무신론에 몰들어 갔고, 그들이 가정에서 배웠던 신앙은 다른 아이들에게로 전파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라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다고 적고 있는데, 이 말씀은 철의 장막에서는 깊은 뜻을 지니게 된다. 여러분은 사랑스런 자녀를 보지 않고 일주일만 지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소련에서 우리 형제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리라.

개신교 계통의 지하교회만 소개한다는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 같다. 소련 내의 그리스 정교회 신도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이 감옥 생활을 했다. 그곳에는 목주도 없었으며 십자가상, 향로 및 촛대도 없다. 성직을 임명받은 신부도 없었다. 신부들이 봉헌할 때 사용하는 예복 그리고 빵과 포도주도 없었으며, 거룩한 기름도, 기도할 때 사용하는 책도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이러한 것들 없이도 직접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기 시작했다.

소련 내의 그리스 정교회는 근본주의 기독교인과 아주 흡사한 참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위성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도 지하 정교회 모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하 그리스 정교회는 관습상 지키고 있던 정교회 예배 의식을 간소화시킴으로써 복음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매우 충실한 교회가 되었다. 지하 정교회에도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다. 칼루가의 나이 많은 엘모겐대주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족벌 체제와 무신론적인 공산 정부에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공산당이 통치한 지 벌써 50여 년! 소련 출판업소에서 발간하는 잡지는 지하교회의 승리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 지하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루마니아에서, 소련 군대 내에 비밀스럽게 뿌려 놓은 씨앗은 소련 자체와 소련군이 침입한 다른 국가들에 전파되었다. 그 씨앗은 이미 결실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공산 세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압박당하고 있던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은 소련 및 중공과 같은 모든 공산 국가 내에서 지하교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로써 증명된다.

끔찍한 상황하에 있는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의 고귀함을 들

려주기 위해 소련에서 보내 온 몇 통의 편지를 소개하려 한다. 그 중 제일 마지막 것은 소련 감옥에서 온 것이다.

### 공산당원이었던 바리아(Varia)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며 노예 노동자가 되었는가?

첫번째의 세 편지는 바리아를 예수께로 인도한 기독교인 마리아 부인에게서 온 것이다.

#### [첫번째 편지]

… 나는 이곳에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 청년 연맹원의 감방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모욕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당신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에 이 아가씨는 내게 해를 끼쳤지만 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자기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녀를 껴안고 함께 울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가씨 이름은 바리아라고 합니다.

큰소리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활을 살

퍼 보면 그들 중의 대부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며 무신론에 길들여진 마음속의 공허함을 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  
마리아 올림

#### [두번째 편지]

일전에 보낸 편지에서 무신론자인 바리아 아가씨 이야길 썼죠? 지금 나는 사랑하는 형제인 여러분들에게 급히 우리의 커다란 기쁨을 말하려 합니다. 바리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알았을 때 그와 동시에 자신이 매우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신이 없다고 선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나는 무신론자들의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리아와 나는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공산당을 찬양하는 일상적인 노래가 끝난 후에(바리아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례가 오자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담대하고도 풍부한 감정으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자신이 영원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타인을 과멸의 구렁텅이로 인도했었노라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동료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간청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잠잠해졌고 아무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마친 후 그녀는 아주 훌륭한 목소리로 일반 기독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날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네”

얼마쯤 지난 후에 바리아는 끌려갔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 9일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녀에 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리아

[세번째 편지]

8월 2일 어제는 사랑하는 바리아와 감옥에서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열 아홉밖에 안 되었죠. 신앙인으로서도 그녀의 영적인 연령은 아직 아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즉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불쌍하게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녀에게 소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녀에게는 일부분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아위어 있었고, 창백했으며,

매질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두 눈만이 이 땅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좌절이라도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철책 사이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바리아, 당신이 행한 일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자유롭게 된다면 나는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대해 전할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견딜 수 있도록 내게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시베리아로 이송될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이 그녀를 체포할 때 그녀의 옷이며 기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현재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던 옷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친척도 없어서 우리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모아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보내준 마지막 돈에서 일부를 저축해 두고 있습니다. 만일 바리아가 유형에 처해질 경우 나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주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장래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여러분의 마리아

## 〔네번째 편지〕

사랑하는 마리아, 마침내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군요. 우리는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캠프는 마을에서 10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아실 줄 압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덕분에 나는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립니다. 나와 X자매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계를 돌려 일합니다. 그 일은 힘이 들고 X자매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몫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일단 내 일이 끝나면 그 자매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2시간 내지 13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당신이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양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당신을 통해서 내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동안 내 삶은 확고한 목적을 지니게 되었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겪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커다란 기쁨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옥조차도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며 주를 믿는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 줍니다.

내 가슴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작업 도중에 그들은 내게 욕지거리를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멸망의 길에 서 있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려 합니다.

캠프로 오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 얼마나 놀라운지 당신은 아십니까? 물론 아시겠죠. 당신도 처음 보자마자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캠프로 가는 도중, 어떤 기차 역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는 우리에게 음식을 나눠 주면서 단 두 마디만 하더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 저녁에,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지하 막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평강이 있으시길”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크나큰 기쁨에 대해 구석구석에서 “우리도 평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수들 중 절반 이상이 신도

들이랍니다. 이들 가운데는 훌륭한 가수도 있고, 훌륭한 설교자도 있습니다. 저녁 때 힘든 노동이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구세주의 발 아래 꿇어 앉아서 최소한 몇 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는 곳은 그 어디에나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게 더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9세 때 나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 놀라운 날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종일 일해야 했지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강가까지 갈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얼음을 깨고 한밤중에 나와 일곱 형제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리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당신에게 저지른 지난 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우리를 배치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곳에 굳세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일상적인 일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 모두 당신께 안부 전해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신앙이 강건해져서 당신이 고통 중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다. 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바리아로부터

## 〔다섯번째 편지〕

사랑하는 마리아, 마침내 몇 자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나와 X자매가 잘 있다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러이러한 곳)에 와 있으며, 그들은 우리를 (이러이러한 곳)으로 보낼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정성껏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받았습니다. 보내 주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보내 주신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에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제 안부도 전해 주시고,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주님은 거룩하고 심오한 사랑의 비밀을 제대로 알려 주셨으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신앙을 갖던 첫날부터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큰 행복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내가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지켜 주시고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나와 X자매는 여러분 모두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게 되는 곳에서 당신에게 다시 편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바리아 올림

이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분을 증거하다 노역을 선고 받았던 공산당원 “바리아”라는 소녀로부터 온 마지막 편지이다. 이후로 그녀에 대한 소식은 다시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증거는,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산치하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충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의 영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

## 제 7 장

### 사랑의 호소

#### 지하교회에서 당신에게 전하는 나의 메시지

나는 “지하교회의 목소리”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부분인 목소리가 될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산주의 땅에서 나는 몇 년 동안 지하교회의 일부분을 맡아서 인도해 왔다. 나는 기적적으로 “죽음의 방”이라는 감옥 생활을 포함해서 모두 14년이란 세월을 고문과 감금 생활로 지내 왔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다시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게 하셔서, 더 큰 기적으로 자유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전할 수 있도록 서구 세계로 데려다



주셨다.

나는 수많은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내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하며, 또한 지금도 비밀리에 숲속에서, 지하실에서, 다락이나 기타 다른 은밀한 곳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내 동포들을 대신해 말한다.

루마니아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나 혼자만이라도 내 조국인 루마니아를 떠나 자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나는 기적적으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하고 모험하며,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맡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하교회에서 내게 부탁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를 단념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 대해 올바르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주십시오! 대가는 지불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훈련받은 메시지이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교회, 지하교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는 “병어리 교회”를 위해서 말한다.

여기, 공산주의 땅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울부짖음이 있다! 그들은 탈출, 안전, 안락한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갈 젊은이들이 무신론 사상에 물들어 가는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이는 성경을 요

구하고 있다. 그들이 성경책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지하교회는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 의사와 같다. 여행 도중에 기차가 다른 기차와 충돌해서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들은 상처를 입고 여기 저기에 누워 있으며 거의 죽어가고 있다. 의사는 죽어가는 환자들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내게 의료 기구만 있다면!” 하고 울부짖는다. 수술 기구만 있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의사는 의지는 있었으나 도구는 갖고 있지 못했다.

이것이 지하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모든 것을 줄 만한 의지는 갖추어져 있고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다. 공산주의 감옥에서 몇 년을 구속당할 용기도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그 의지는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이다.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에게 충성스럽고도 용감한 지하교회가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도구를 주십시오. 복음서, 성경, 기타 다른 문서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 어떻게 자유 세계의 기독교인이 도울 수 있나?

자유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즉시 도울 수가 있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주에서나 삶 속에서 무엇이 신

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들이 지속적인 기독교인의 생활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돕는 길이다.

자유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 그 기도를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은 다음 날에는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우리를 고문했다.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다. 기도가 끝난 뒤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루에 5,000명이나 변화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당신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당신의 기도에 역행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와 많은 기독교인들은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왔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기도가 동맹군의 총 못지않게 그들을 패배시키는 데 공헌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웃에는 공산당원이나 어느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시키지 못한 소치이다.

즉 “나는 생명과 보다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사람에게 좀더 풍요한 삶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중요한 것들의 주변에 무엇을 남겨 놓았다. 이런 것들이 반란을 야기시키고 공산당을 조직하게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의 희생물이 되곤 하였다. 지금 그들은 간악하고 잔인한데, 우리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서라도 적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몇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역시 죄인이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속죄해야 한다.

나는 “사랑”, 이것만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은 못 된다. 나는 당국에서 폭력배의 문제를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싶지는 않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사들뿐 아니라 감옥도 필요하다. 폭력배들이 누우치지 않으면 그들은 감옥으로 보내져야 한다.

나는 공산당에 대항해서 올바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싸움을 중재시키는 데 기독교의 “사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국가적인 규모의 폭력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패들은 지갑을 훔치지만, 그들은 일개의 국가를 통째로 훔친다.

그러나 목사와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저지른 죄가 무엇 이든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

다. 또한 아무 죄 없이 희생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 성경과 복음서들은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들이다.

두번째로, 자유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책과 이에 관련된 복음서를 보내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을 안전하게 공산 국가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내가 출국한 이래로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보냈으며 안전하게 도착되었다.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있으며, 이것은 지하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그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루마니아에 있을 때 나 자신도 비밀리에 보내어진 성경책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여러분이 마련만 해준다면 보내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과 복음서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소련과 그 위성국가에 있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20~50년 동안에 성경책이라든가 복음 서적을 받아 본 적이 없다.

하루는, 깔끔해 보이지 않는 마을 사람 2명이 우리집엘 찾아왔다. 그들은 마을에서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삽질해서 번 돈을 낚고 오래 된 성경이라도 살 수 있으리라는 조그마한 희망을 갖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책을 갖고 마을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성경책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낚

은 것이 아닌 새 책을 줄 수 있었다.

그들 눈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언 땅을 삼질해서 번 돈으로 그 책값을 지불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마을로 내달았다.

며칠 후에 성경책을 주어서 감사하다는 무한한 기쁨의 사연을 적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에는 주민들 30명의 사인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30등분해서 각기 한 부분씩 바꾸어 가면서 읽었다고 한다.

소련인들이 성경을 한 페이지라도 읽기 위해 구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슬펐다. 그들의 영은 성경책 한 페이지를 먹고 산다. 그들은 소나 양으로 성경책 한 권을 바꾸고는 무척 기뻐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본 적이 없다. 카드 하나만 보면 온 마을 꼬마들이 카드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으며, 몇몇 노인들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성탄 카드를 보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성경과 복음서, 기타 문서 전도지를 보내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지하교회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세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젊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무신론적인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특수 전도 서적을 인쇄해서 보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무신론자 지침서』가 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을 위한 “성경”인 셈이다. 간단한 구절부터 유치원 꼬마들에게 가르치고, 이 책보다 조금씩 수준을 높여서 어린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가르치고 있다. 이른바 사악한 “성경”은 한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무신론에 감염시키고자 그를 졸곧 따라 다닌다.

기독교 세계는 무신론주의의 가르침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을 인쇄해서 보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즉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하교회에서는 그 책에 의해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낼 만한 서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하교회는 등 뒤에 손이 뽕뽕 묶여 있다. 지하교회가 공산국가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된 서적을 갖출 수 있게 될 때까지 말이다.

우리의 전염된 젊은이들은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의 대답이며 우리의 대답인 신의 대답이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인데, 『무신론자 지침서』에 대한 답변 같은 서적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학과 어린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네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로서, 지하교회 구성원과 손을 잡고 개인적으로 복음주의에 입각해서 여행하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일이다.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차표, 버스비, 식량 등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거리에 묶여 있다. 그들은 자금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20마일 내지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있는 비밀 모임에 초청을 받아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 한달에 5~10

파운드만 주면 그들은 초청에 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오갈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불타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전직 목사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할 만한 수단이 없는 것이다. 한 달에 몇 파운드만 도와준다면, 그들에게도 길은 열리는 것이다.

평신도들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도 복음을 전하러 이리 저리 다닐 수가 있다. 한 달에 주어지는 몇 파운드로 그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 모회를 병행하는 공식 교회 목사들에게도 이같은 자금이 후원되어야 한다. 공산 정부가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당히 적다. 공산주의의 법을 무시함으로써 자유를 위협당하는 목사들의 의지는 어린이, 젊은이, 어른에게 비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 모회에 대한 성취 방법이 있어야 한다.

지하교회 교인들은 1개월에 5~10파운드로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은 지하교회를 돕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산국가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 세계의 방송국을 이용해서 우리는 생계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지하교회를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 정부는 자체적으로 선전 활동을 펴기 위해 단파 방송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련과 다른 노예화된 수백만 국민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갖고 있다. 이



제는 공산 국가로 방송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지하교회는 방송이 제공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것이 공산 세계에 있는 지하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이다.

## 기독교 순교자 가족들의 비참한 생활

우리는 기독교 순교자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 수천 명의 가족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다.

지하교회의 한 성도가 체포되면 그의 가족에게는 소름끼치는 드라마가 연출된다. 누구든 그들을 돕는 것은 엄청난 불법이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집에 남아 있는 처자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잘 계획하고 있다. 한 기독교인이 감옥에 가게 되면 죽거나 고문을 받게 되며,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끊임없이 고통이 가해진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잘 정돈되어 있고 규율이 잡혀 있는 자유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만약 나를 찾아 주지 않고 내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알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대량 체포 및 잔학한 테러가 소련과 이외의 다른 공산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그들은 무덤에 가서 그들의 상급을 받겠지만,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또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기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죽었거나 신앙을 지키다 공산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이들의 가족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풀려난 후 유럽 기독교 선교회는 이미 기독교 순교자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이제껏 행해졌던 일은 우리가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던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남아서 망명해 온 지하교회 성도 중의 한 사람인 나는 내 뒤에 남겨둔 내 형제들의 메시지와 호소문과 탄원서를 갖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보낸 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도록 나를 보냈다. 나는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공산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절박함에 대해 증거했다. 또한, 기독교 순교자의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비상 대책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나는 지하교회가 복음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했다.

내가 발바닥을 얻어맞았을 때 내 혀는 울었다. 왜 혀가 울었는가? 맞았기 때문이 아니다. 혀와 발은 같은 지체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같은 자유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공산 감옥에서 매질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과 같은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가?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 및 희생 정신은 공산 국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드라마가 일어날 장소에서 불과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순교자적인 교회를 구하기 위해 기독교인인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가? 철의 장막 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 자유 세계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여러분의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 보라.

철의 장막 뒤에서는 초대교회의 극적인 사건, 용감한 행동과 순교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데, 자유 세계에 있는 교회는 잠자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홀로 남겨져서 초대 교회의 영웅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인 모습들과 똑같이 20세기의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구세주가 고통스러워했던 순간에 잠자고 있었듯이, 자유 세계에 있는 교회는 지하교회가 투쟁과 고통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잠자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과 지하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로이 고통당하며 싸우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또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여!

우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고 도와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오.”

지금 나는 공산주의 땅에 있는 충성스럽고도 순교자적인 지하교회에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의 속박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 지하교회의 목소리

---

등록/1990. 12. 22. 등록번호/제21호

1995. 4. 15. 1판 인쇄

1995. 4. 20. 1판 발행

발행인/이 승 호

저 자/리처드 범브란트

발행처/도서출판 두돌비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613-1

Tel:(0344)64-1124 Fax:(0344)64-1124

서고 : (02)308-4270

제 작/글마름(277-2827)

---

값 3,500원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꿔 드립니다.